



삼일회계법인

2025 Mid-Year Update

Global M&A Industry Trends

August 2025 | 삼일PwC경영연구원





민준선 대표
삼일PwC Deal 부문

들어가며

올해 상반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중동 및 유럽의 지정학적 갈등 증가, 한국의 조기 대선 등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기였습니다.

여전히 경제는 안팎으로 불확실하지만, 하반기 M&A를 둘러싼 제반 환경은 긍정적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가 주도하는 기술 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각국의 군비확충에 따라 조선·방산 산업이 부상하고 에너지 및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법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으로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 협상 마무리에 따라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M&A 시장을 둘러싼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지금, 본 보고서를 통해 상반기 M&A 시장을 평가하고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과 업종별 투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M&A를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PwC 고객과 독자에게 풍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genda

1	Executive Summary	4
2	2025년 상반기 M&A 시장 Review	8
3	2025년 하반기 M&A 시장 전망	17
4	산업별 M&A Trend 및 2025년 하반기 Outlook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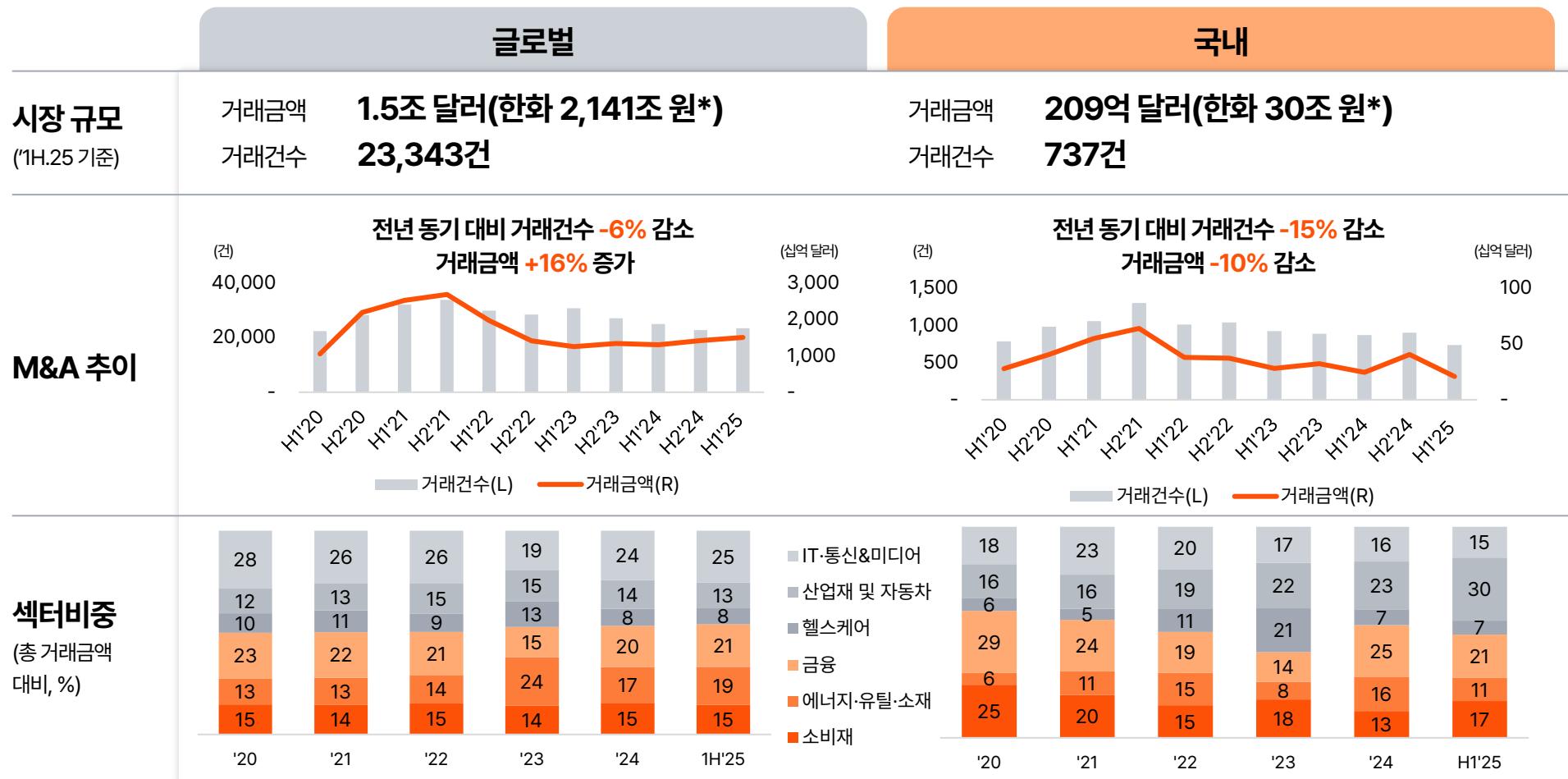
1

Executive Summary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5 Mid-Year Update

2025년 상반기 M&A 시장 Review

- (글로벌) 전년 동기 대비 거래건수 -6% 감소, 거래금액은 +16% 증가.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메가딜¹⁾이 증가(YoY +5건)하며, 시장 회복을 견인
- (국내) 거래건수 및 금액 모두 감소(각각 YoY -15%, -10%)하며 시장 침체 지속. 무역분쟁 및 국내 정치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 위축



1) 메가딜(Mega Deal): 거래금액 5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딜

*환율: 1,427원/달러 적용('25년 상반기 평균 기준)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2025년 하반기 M&A 시장 전망

매크로 변수 동향

예상보다 더 강도 높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매크로 불확실성 증대 → M&A에 비우호적 환경 지속

정부부채 부정적 영향 지속

- 미국 등 주요국 정부부채 증가 → 국채발행 증대 → 장기금리 상승 · 재정 및 통화정책 운영 난항

금리

부정적 영향 지속

-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 증대 → 시장 금리 상승

PE

부정적 → 자체 대안 모색

- 불확실한 경제 환경과 IPO 시장 약세로 Exit 난항 → 컨티뉴에이션 펀드, 세컨더리 딜 등 자구책 모색
- 중금리 장기화에 대응하여 사모크레딧 확대, 리테일 투자자 유치를 위한 노력 지속

Valuation

긍정적: 향후 거래 활성화 기대

- Valuation 하락 진행. 특히 대형딜(10억 달러 이상) 위주로 Multiple 하락

M&A 시장 전망

(부정적) 중금리 지속 vs. (긍정적) 관세 현실화로 불확실성 감소 & 시장 주체들의 활로 모색 → M&A 시장 완만한 회복 진행

글로벌 환경 변화 대응

- 무역분쟁 대응을 위한 밸류체인 재구축,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에 따른 핵심 자원 및 에너지 확보 움직임

AI가 주도하는 기술 혁명

- AI 확산으로 AI 기술 뿐 아니라, 반도체 및 관련 인프라 등 전반위적 투자 가속화

기업 Biz 모델 변화 필요

- 포트폴리오 재정비(비핵심 자산 매각 → 신기술 투자)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속

시장 주체들의 적응력 증대

- 비우호적 M&A 환경 + 투자자들의 Exit 요구 증가 → 사모펀드의 자구책 모색
- 회수방식 다양화, 사모크레딧 확대,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 진출 등

산업별 M&A Trend 및 2025년 하반기 Outlook

소비재	관세 정책과 소비자 선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재구성 지속 • 소비 트렌드 맞춤형 투자: 개인화·건강 지향적·친환경적 소비 성향을 고려한 투자 진행 • 관세·무역전쟁 대응: 무역분쟁으로 경영환경 불확실성 증대 → 비핵심사업·브랜드를 매각하여, 재무 유연성을 확보하고 핵심 사업 집중 &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여 현지 투자 및 전략적 제휴 고려
에너지·유틸리티&소재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자원·에너지 안보 중요성 부각. 또한 AI 발전에 따른 전력 인프라 확보에 관심 집중 • 자원 확보: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략적 M&A • 안정적 전력 인프라 구축: 각국의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운송 수단의 전동화 → 전력 인프라·배터리·에너지 저장장치 등의 관심도 증가
금융	시장지배력 강화·신규 시장 진출 목적 M&A 진행. 금융 트렌드 변화와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지속 전망 • 동일 업종 내 합병: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당국 규제로 대형은행 합병은 위축되었으나, 이 외 금융부문(결제·지역은행·자산관리·보험중개 등)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업종 내 합병 진행 • 연관 업종 인수: 암호화폐, 인프라, 데이터 분석 등 연관 사업 인수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모색
헬스케어	약가 정책과 무역 규제 불확실성이 M&A 제약 요인으로 작용.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와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중심으로 Deal 수요 증가 •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특히 만료에 대비한 제약사들의 M&A 진행. 희귀질환 치료분야는 여전히 시장 관심사 • 맞춤형 헬스케어 투자: 디지털화·예방 치료·웨어러블 기기·원격 모니터링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 관심
산업재·자동차	관세 영향으로 거래 환경은 불리하나, 국방력 강화·공급망 재편 수요가 M&A를 견인. 제조 분야 혁신 기술 확보에 투자 지속 전망 • 사업구조·공급망 재편: 산업 내 과잉생산에 대응하여 비핵심자산 매각, 무역분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 • 핵심 역량·기술 투자: AI 기반 방위시스템, 드론, 자동화, 로봇,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 증가
IT·통신&미디어	AI 전환 가속화 → 반도체·AI 인프라 관련 수요 지속 전망 • AI 투자: 자율형 AI 에이전트 경쟁 본격화와 함께 AI 벤류체인 전반에 걸친 인프라·인재 확보 경쟁 • 사업구조 재편: 급변하는 업계 상황에서 비핵심사업 매각으로 운영을 효율화하거나, 경쟁사와의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모색



2025년 상반기 M&A 시장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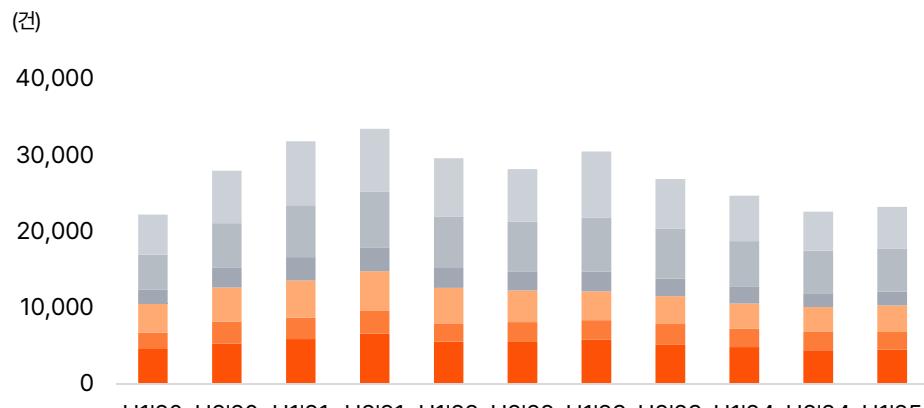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5 Mid-Year Update

2025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시장 전체,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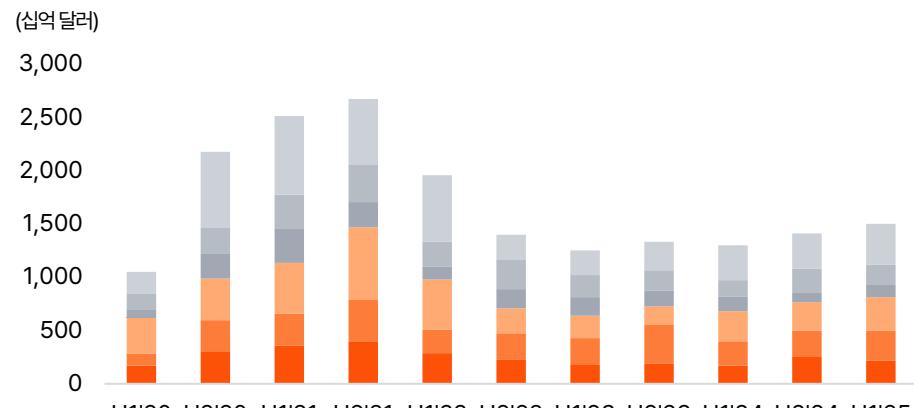
- '25년 상반기 글로벌 M&A 시장은 거래건수 23,343건(YoY -6%), 금액 1조 5,030억 달러(YoY +16%) 기록
 - 거래건수는 '24년 하반기 이후 소폭 상승, 거래금액은 '23년을 바탕으로 증가 추세 →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M&A 시장 회복 진행
 - '25년 상반기 주요 화두는 관세전쟁으로, 관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 증가
-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소비재(+29%), 에너지·유틸리티·소재(+23%), 산업재·자동차(+22%), IT·통신 & 미디어(+17%), 금융(+11%) 증가 vs. 헬스케어(-15%) 감소
 - 소비재: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소비심리 위축 등의 비우호적 경영환경 지속. M&A 거래건수는 부진하지만(YoY -7%), 메가딜(7건) 영향으로 거래금액은 증가
 - IT·통신 & 미디어: AI 관련 투자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 다만 복잡한 밸류체인으로 인해, Tech 산업이 관세에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재검토 진행
 - 헬스케어: 의약품 관련 관세·약가 책정·FDA 규제 리스크 →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불확실성에 직면. M&A 거래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

글로벌 M&A 거래건수 및 금액(Industry별)

거래건수



거래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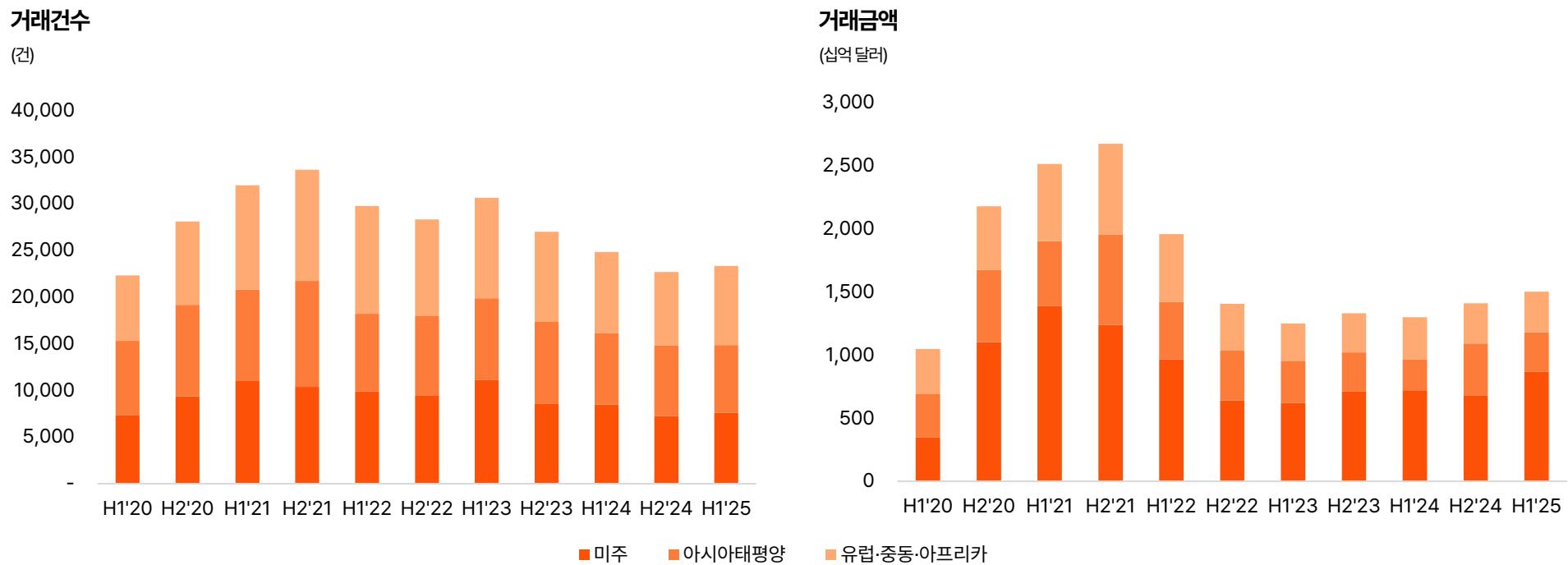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2025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시장 전체, 지역별

- 거래건수는 전 지역에서 감소. 거래금액은 아시아태평양(YoY +27%)과 미주(YoY +20%) 증가 vs. 유럽·중동·아프리카(YoY -3%) 감소
 - 미주: 거래건수 감소폭은 가장 커지만(YoY -11%), 다수의 메가딜로 거래금액이 증가(YoY +20%)하며 글로벌 M&A 시장을 주도
 - 전체 M&A 시장 내 미주 영향력 확대: '20년 45% → '22년 48% → '24년 52% → '25.1H 58% (총 거래금액 내 미주 비중)
 - 유럽·중동·아프리카: 거래건수 소폭 감소(YoY -2%), 거래금액도 소폭 감소(YoY -3%)하며 전반적으로 M&A 열기가 미진. 거래금액 감소는 특히 영국의 메가딜 부진에 기인
 - 아시아태평양: 거래건수는 감소(YoY -5%)했지만, 거래금액은 가장 크게 증가(YoY +27%).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메가딜이 활발히 진행

글로벌 M&A 거래건수 및 금액(지역별)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2025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글로벌 Top 10 Deals

- '25년 상반기에는 ① AI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술 부문 투자 및 ② 규모의 경제를 위한 통신·금융·에너지 부문 메가딜이 시장을 주도
- **AI·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확보:** ▲ 알파벳(Alphabet, Google 모회사)의 클라우드 보안기업 위즈(Wiz) 인수, ▲ OpenAI·SoftBank·Oracle의 스타게이트(Stargate, AI 프로젝트) 추진, ▲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테크기업인 다우닝 인포메이션(Dawning Information)과 하이곤(Hygon) 전략적 합병 등
- **규모의 경제 창출:** ▲ 원자력 업체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Constellation Energy), 지열·천연가스 발전기업 칼파인(Calpine) 인수를 통해 미국 최대 전력 생산업체로 도약
▲ 결제서비스업체 글로벌 페이먼츠(Global Payments), 월드페이(Worldpay) 인수로 연간 3조 7천억 달러 규모 결제처리망 확보, ▲ 미국 2-3위 케이블업체인 차터 커뮤니케이션(Charter Communications)과 콕스(Cox) 합병 진행

Top 10 Global Deals, 1H'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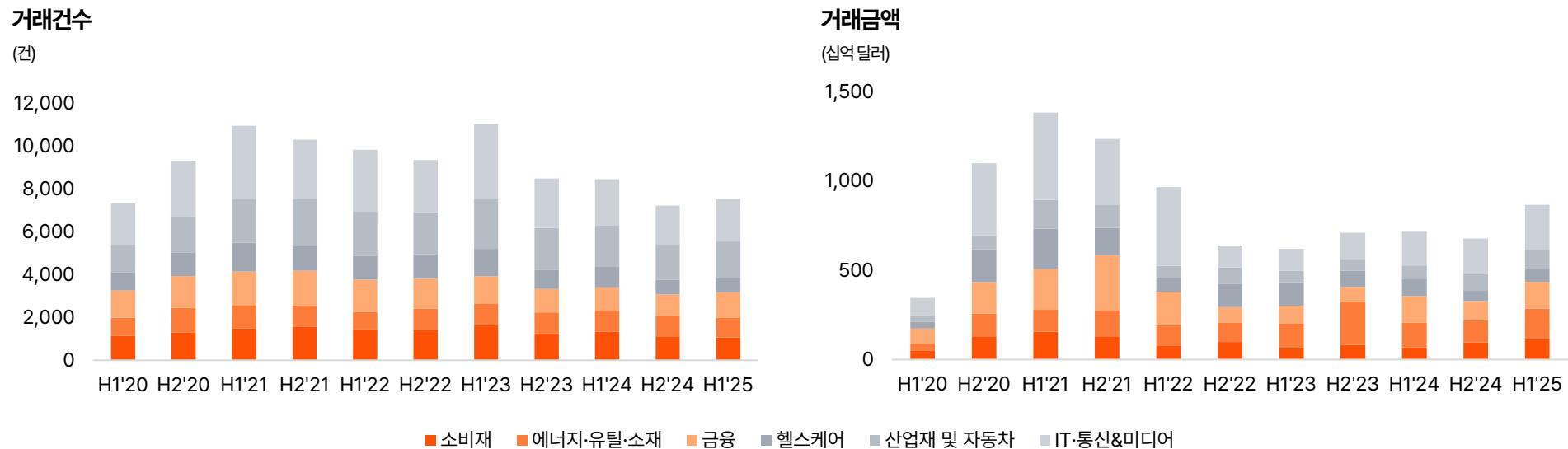
Rank	Target	Buyer	Sector	Deal size(US\$bn)
1	Wiz Inc	Alphabet Inc	Technology	32.0
2	OpenAI Global LLC	Investor Group(SoftBank 등)	Technology	30.0
3	Calpine Corp	Constellation Energy Corp	Power & Utilities	26.9
4	Worldpay LLC	Global Payments Inc	Banking & Capital Markets	24.3
5	Hutchison Port Holdings SARL, Hutchison Port Group Holdings Ltd	Investor Group(BlackRock 등)	Transportation & Logistics	22.8
6	Cox Communications Inc	Charter Communications Inc	Media and Entertainment	21.9
7	Santos Ltd	Investor Group(ADNOC 등)	Oil & Gas	18.7
8	NTT Data Group Corp	Nippon Telegraph & Telephone Corp	Technology	16.5
9	Dawning Information Industry Co Ltd	Hygon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Technology	16.1
10	Intra-Cellular Therapies Inc	Johnson & Johnson	Pharma & Life Sciences	14.6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s.

2025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지역별 - 미주

- '25년 상반기 미주 지역 M&A 시장은 거래건수 7,589건(YoY -11%), 거래금액 8,690억 달러(YoY +20%) 기록
 - 거래건수는 글로벌 평균(YoY -6%)보다 감소폭이 커졌고, 거래금액은 메가딜 증가로 인해 글로벌 평균(YoY +16%)보다 호조
 - 메가딜 관련 거래금액이 약 4,00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거래의 절반 수준을 차지
 - 글로벌 자금의 미국 집중 심화되며, M&A에서 미주의 영향력 확대 (전체 M&A 거래금액 내 미주 비중: '20년: 45% → '22년: 48% → 1H'25: 58%)
-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소비재(+66%), 산업재·자동차(+46%), IT·통신 & 미디어(+30%), 에너지·유틸리티·소재 (+24%), 금융(+1%) 증가 vs. 헬스케어(-26%) 감소
 - 금융과 헬스케어 제외 나머지 섹터에서 모두 거래건수는 감소, 거래금액은 증가 → 메가딜이 M&A를 주도
 - 회복세가 가장 강했던 섹터는 소비재로 6건의 메가딜로 인해 거래건수 감소(YoY -21%)에도 불구하고, 거래금액이 큰 폭 증가(YoY +66%).
 - 가장 부진했던 섹터는 헬스케어이며, 관세 및 트럼프 정부 약가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건수(YoY -33%), 거래금액(YoY -26%) 동반 감소

미주 지역 M&A 거래건수 및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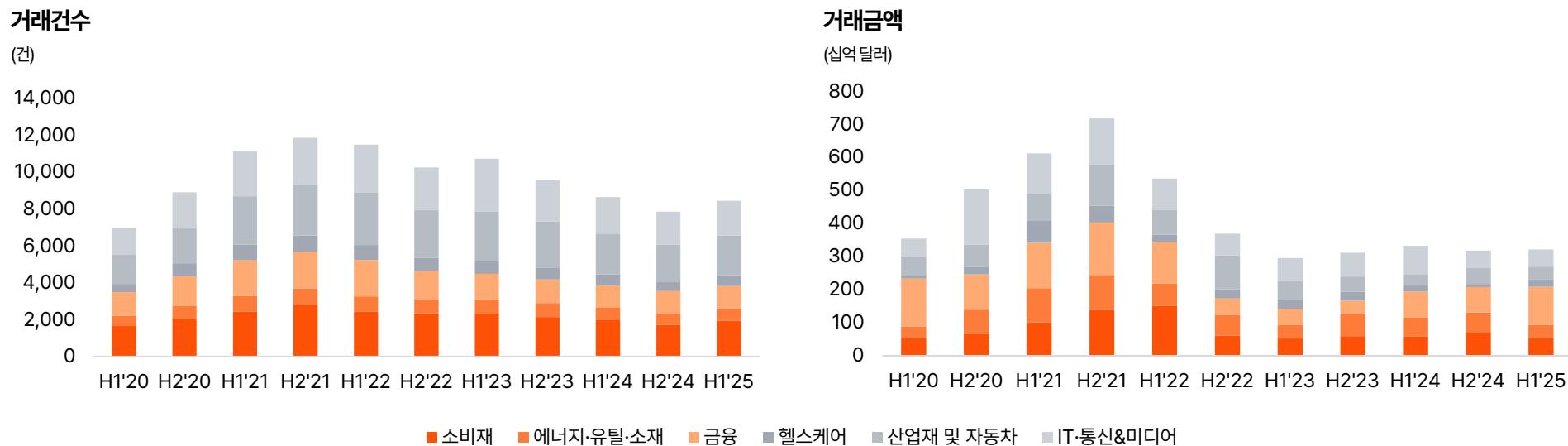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2025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지역별 -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 '24년 상반기 유럽·중동·아프리카 M&A 시장은 거래건수 8,478건(YoY -2%), 거래금액 3,228억 달러(YoY -3%) 기록
 -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하며 M&A 시장의 활동성이 줄어든 상황. 특히 거래금액은 글로벌 평균(YoY +16%) 대비 큰 폭 부진
 - '21년 이후 메가딜이 크게 감소했으며, '25년 상반기 메가딜은 약 500억 달러로 미주 지역 대비 10% 수준에 불과
- 거래건수는 금융 제외 전 섹터에서 감소. 거래금액은 금융(YoY +48%)과 헬스케어(YoY +24%)가 메가딜의 영향으로 큰 폭 증가 vs. 에너지·유틸·소재(YoY -31%)와 IT·통신&미디어(YoY -37%)는 부진
 - 금융: 글로벌 시장 내 유럽 자본의 영향력이 감소 → 규모의 경제(대형화)·신규 지역·신사업 진출을 위한 유럽 금융기관 내 합병 추진
 - 헬스케어: 신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대형딜 영향으로 거래금액 큰 폭 증가. 항암·중추신경계·면역질환 분야에 주된 관심
 - IT·통신&미디어: 미국·일본 Deal이 시장을 주도하며,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의 M&A는 부진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M&A 거래건수 및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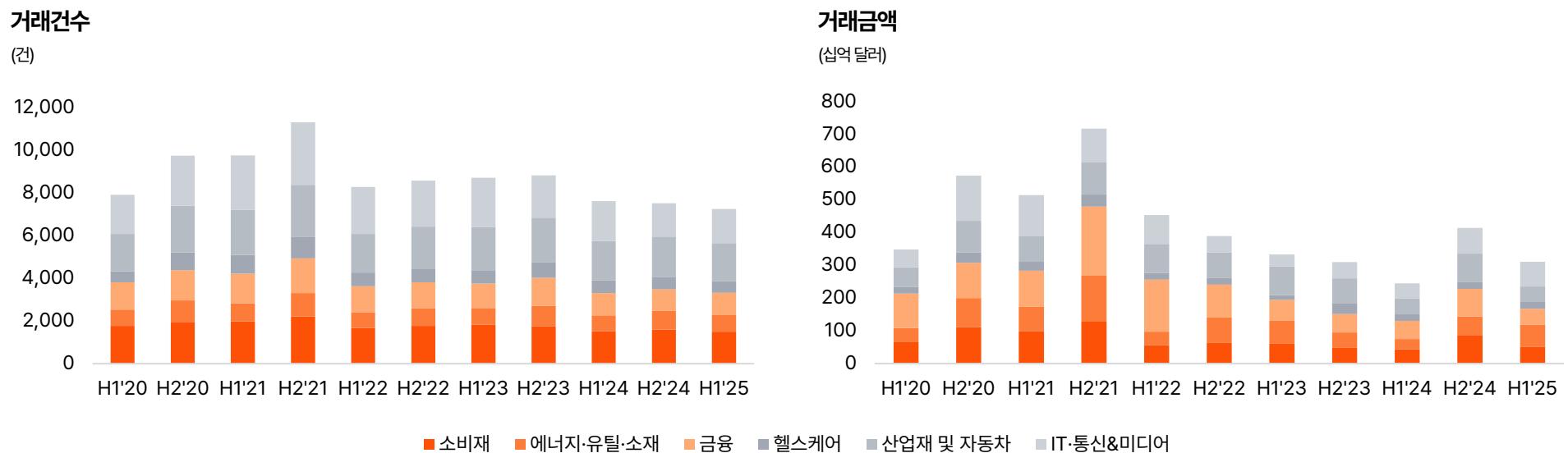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2025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지역별 - 아시아태평양

- '25년 상반기 아시아태평양 지역 M&A 시장은 거래건수 7,276건(YoY -5%), 거래금액 3,109억 달러(YoY +27%) 기록
 - 글로벌 평균(건수 및 금액 각각 YoY -6%, YoY +16%) 대비 거래건수 감소폭은 유사, 거래금액은 큰 폭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회복되었으나, '25년 상반기 메가딜은 360억 달러 규모로 미주 대비 8% 수준에 불과. 글로벌 전 지역 중 아시아태평양의 메가딜이 가장 열위
- 에너지·유틸·소재(YoY +118%)와 IT·통신&미디어(YoY +62%)에서 거래금액 큰 폭 증가 vs. 산업재·자동차(YoY -2%), 금융(YoY -12%)은 부진
 - IT·통신&미디어: 글로벌 Top 10 deal 중 2건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진행되었으며, 2건 모두 Tech 부문 딜
 - 규모의 경제 및 그룹 내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일본 최대 통신업체 NTT – IT 서비스 분야 자회사 'NTT 데이터그룹' 완전 자회사 편입(165억 달러)
 - 미국 기술 제재 대응 위해 중국 테크기업인 다우닝 인포메이션(Dawning Information) – 하이곤(Hygon) 합병(161억 달러)
 - 에너지·유틸·소재: 전년도 거래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거래금액이 증가. 의미 있는 대형딜은 부족

아시아태평양 지역 M&A 거래건수 및 금액 추이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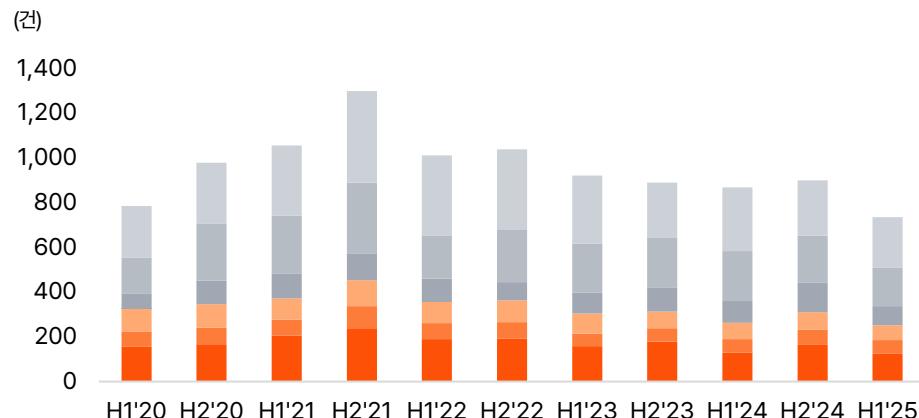
2025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지역별 - 한국

- '25년 상반기 국내 M&A 시장은 거래건수 737건(YoY -15%), 거래금액 30조 원(YoY -10%) 기록
 - 글로벌 평균(건수 및 금액 각각 YoY -6%, YoY +16%) 대비 거래건수 및 금액 모두 부진
 -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경제환경과 높은 원달러 환율로 인해 투자심리 위축
- 거래건수는 전 섹터에서 감소. 거래금액은 소비재(+54%), 에너지·유틸리티·소재(+35%) 증가 vs. 산업재·자동차(-1%), IT·통신 & 미디어(-22%), 헬스케어(-26%), 금융(-37%) 순으로 부진
 - ▲소비재 부문은 한화호텔&리조트 - 아워홈 인수(8,695억 원), ▲에너지·유틸리티·소재는 SK그룹 리밸런싱의 일환인 SK이노베이션 - 엔무브 완전 자회사 편입(8,600억 원)의 영향으로 거래금액 큰 폭 증가
 - 산업재·자동차: LG화학의 수처리시스템 매각(1.4조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한화오션 지분 추가 인수(1.3조 원) 등의 다수의 대형딜 발생. 다만 전년 동기 기저효과(한국앤파머니그룹 - 한온시스템 인수, 1.2조 원/현대차 그룹 - 모셔널 추가 투자, 1.2조 원 등)로 인해 거래금액 증가폭은 미미
 - 금융: '24년 상반기 대형딜이었던 MBK - 지오영홀딩스 인수(2조 원)¹⁾에 따른 기저효과로 M&A 금액 큰 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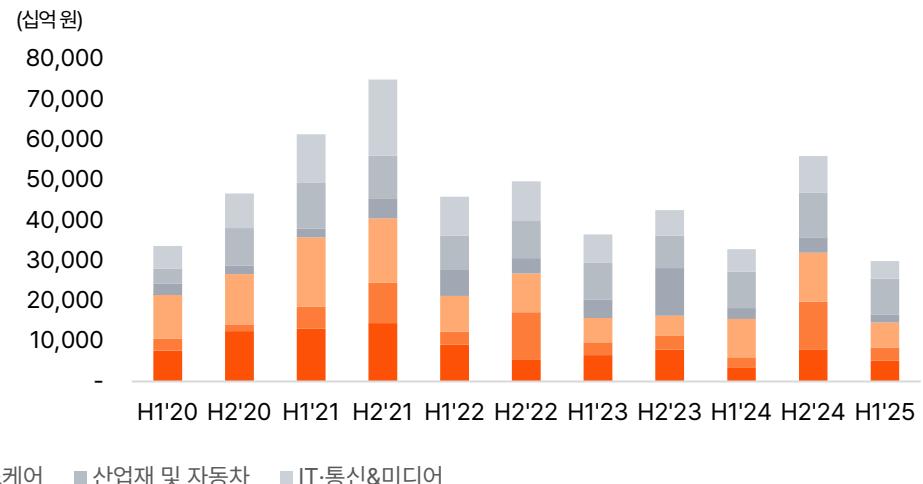
1) 지오영은 의약품 유통사이나, 업종 분류 상 지주회사로 구분되어 금융부문 M&A에 포함

국내 M&A 거래건수 및 금액: Industry별

거래건수



거래금액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2025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한국 Top 10 Deals

- '25년 상반기에는 ① 사업부 시너지 창출과 ②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비핵심산업 매각 및 신성장 동력 확보) Deal이 시장을 주도
 - **사업부 시너지 창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3조 원의 유상증자 통해 한화오션 지분 추가 확보(7.3%). 향후 수주 - 생산 - 기술개발 등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양사간 시너지 창출 기대. ▲HLB - HLB생명과학 흡수합병으로 수익구조 통합 및 신약개발 효율성 제고
 - **비핵심산업 매각:** LG화학, 수처리필터 사업 양도(1.4조 원)로 확보된 자금을 활용하여 배터리 소재 등 전략 사업 집중 예정
 - **신성장동력 확보:** 교보생명 - SBI저축은행 인수(9천억 원), 웅진그룹 -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 인수(8,830억 원), 한화호텔&리조트 - 급식업체 아워홈 인수(8,695억 원) 등

Top 10 South Korea Deals, 1H'25

Rank	Target	Buyer	Sector	Deal size(KRW bn)
1	LG화학 수처리필터 사업	코리아워터솔루션홀딩스(글랜우드PE)	제조	1,400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너지 등	항공 · 방산	1,300
3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 · 방산	1,300
4	SBI저축은행	교보생명	은행 · 금융	900
5	프리드라이프	WJ라이프(웅진)	금융 서비스	883
6	아워홈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소비재	870
7	SK엔무브	SK이노베이션	화학	860
8	HLB생명과학	HLB	소매업(의약)	(*) 689
9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펠류리츠사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은행 · 금융	662
10	교보생명	투자자 그룹(SBI,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보험	650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s.

(*) 증권신고서(합병)상 모집총액. 합병신주 11,809,002주 × HLB 합병가액 58,349원



3

2025년 하반기 M&A 시장 전망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5 Mid-Year Update

M&A 관련 매크로 변수 동향

- 예상보다 더 강도 높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매크로 불확실성 증대 → M&A에 비우호적 환경 지속
 -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시장금리 상승. 단, 은행 – 사모크레딧 간 대출 경쟁 지속되며 자금조달은 원활
 -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되며, PE의 Exit 활동 제약 → 컨티뉴에이션 (Continuation) 펀드¹⁾, 세컨더리 딜(Secondary Deal)²⁾등 자체적 대안 찾기 진행 중

M&A 시장을 둘러싼 매크로 변수

		현황 및 전망								M&A 시장에의 영향	
1 정부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등 주요국, 누적된 재정적자로 경기 변동성 증대 및 자국 기업들의 신용도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평균 정부부채는 GDP 대비 85% 수준으로, 금융위기 직전('07년) 대비 2배 수준 증가 								부정적 영향 지속	
2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 증대 → 시장금리 상승 								부정적 영향 지속	
3 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 보유 기업 수가 3만개를 넘어섰으며, 이중 47%는 '20년 이후 지속 보유 → 평균 보유기간 증가 투자자금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나, 불확실한 경제 환경과 IPO 시장 약세로 Exit 난항 → 컨티뉴에이션 펀드, 세컨더리 딜 등 통한 해결책 모색 								부정적 → 자체 대안 모색 진행	
4 Val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딜(10억 달러 이상)을 중심으로 Valuation 하락 								긍정적 영향: 향후 거래 활성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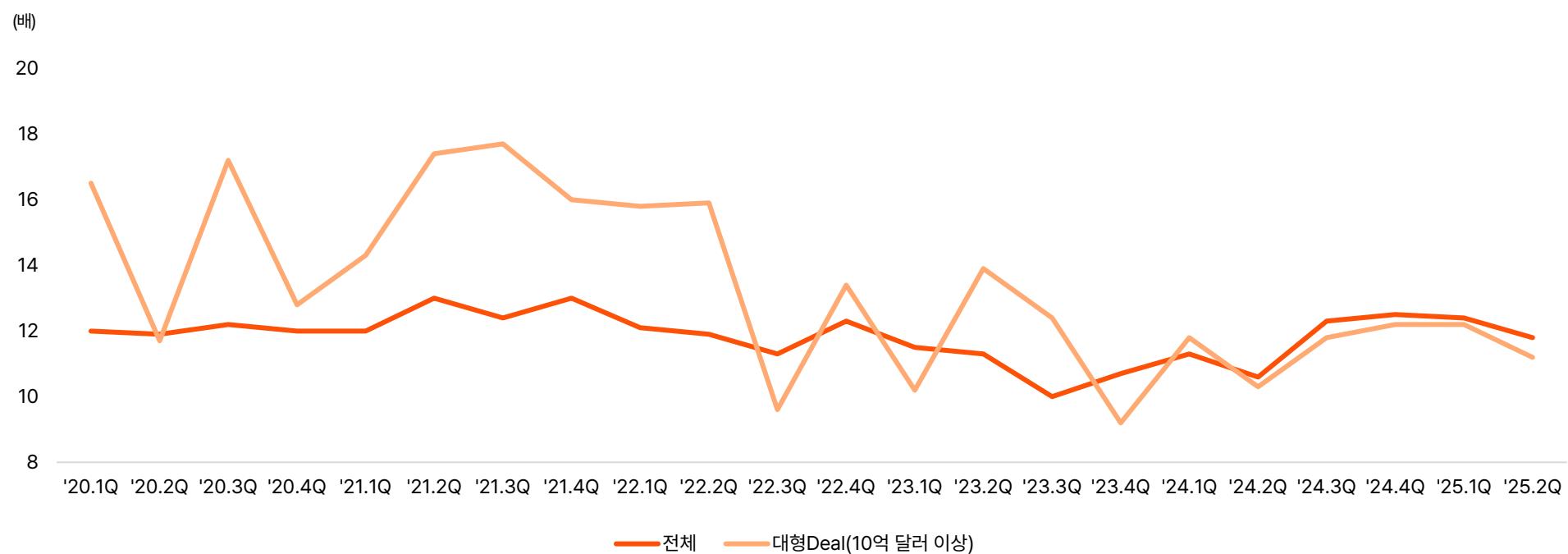
1) 컨티뉴에이션 펀드: 기존 펀드에서 관리하던 자산을 신규 펀드로 옮기되, 기존 GP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구조

2) 세컨더리 딜: PEF가 보유하고 있던 기업을 다른 PEF가 사가는 방식

Valuation 점검

- [Deal 전체] '20년 이후 평균 11.8x(EV/EBITDA 기준). '24.3Q 이후 시장 회복 기대감과 함께 Valuation 상승 추이를 보였으나, 최근 다소 주춤한 상황
 - 미국은 '25.1H에도 Valuation 상승 추이가 지속되고 있으나, 유럽과 아시아 지역은 하락 → 관세전쟁에 미국기업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 반영
- [대형딜] Valuation 지속 하락하며, '24년 이후 시장 전체 평균 대비 낮은 Multiple 적용
 - COVID-19 기간 동안 대형딜에 평균 27%의 Premium 적용: 투자자들은 팬데믹 상황에 대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
 - '24.2Q 이후 대형딜은 평균 3%의 Discount 적용: 대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 → 관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 투자 매력도 감소

Valuation 동향 (EV/EBITDA)



Sources: S&P Capital IQ and PwC analysis

주요 투자 주체 동향 – ①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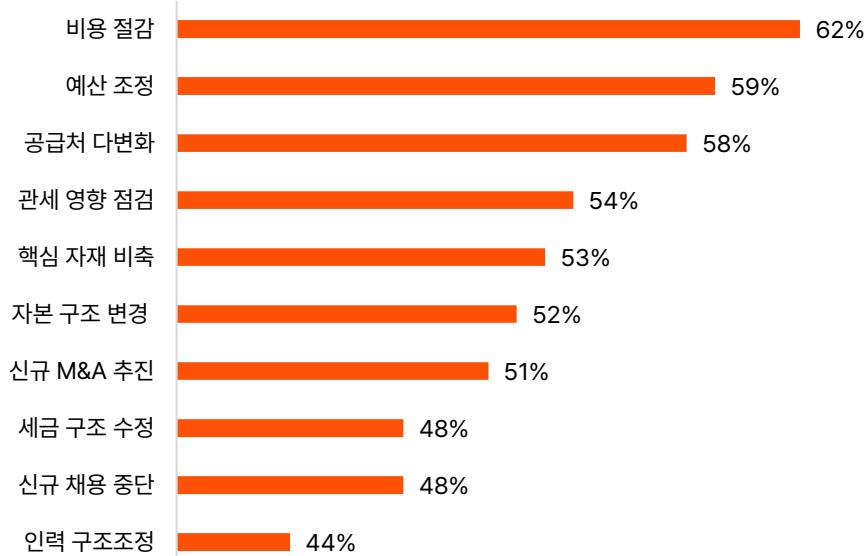
- 예상보다 더 강력한 트럼프 2.0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 기업들의 투자 전략 변화: 관세 및 공급망 중심 대응, 신규 투자는 다소 지연

PwC Pulse Survey('25.5월. 글로벌 주요 기업 임원 678명 대상)

- 기업들은 최근 단기 전략 변화를 일으킨 요인으로 미국의 경제정책(48%), AI·데이터 규제(44%), 미국 관세정책(41%)를 선정
- 기업의 전반적 대응 방안은 비용 절감(62%), 예산 조정(59%), 공급업체 다변화(58%)로 신규 투자가 우선 순위에서 밀림.
- 관세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와 가격협상(65%), 소비자 가격전가(60%), 미국(62%) 또는 저관세 국가(57%)로부터 원료 조달 확대, 미국으로 공장 이전(48%) 등 진행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기업들의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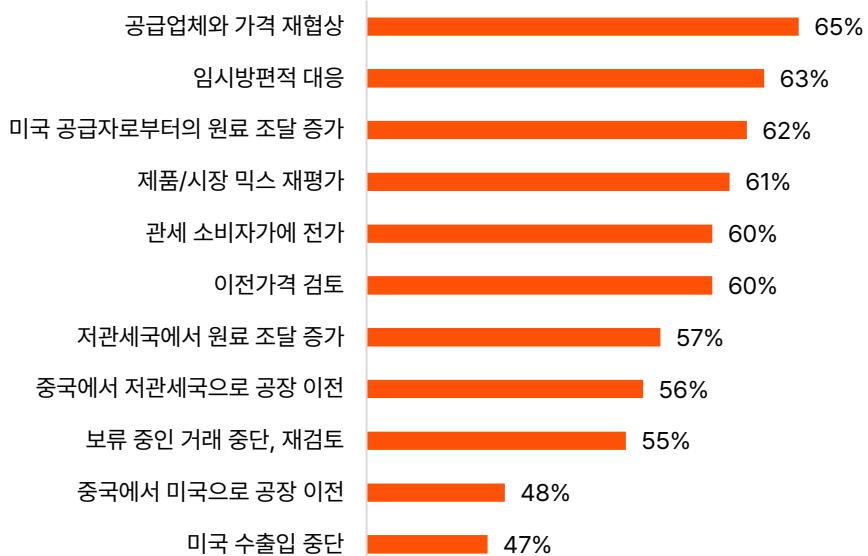
Q: 현 경제 상황에서, 귀하의 회사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Sources: PwC Pulse Survey('25.05): base of 678 Executives

관세 대응 방안

Q: 관세 및 무역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으십니까?



Sources: PwC Pulse Survey('25.05): base of 678 Executives

주요 투자 주체 동향 – ② 사모자본 (PE, 부동산)

PE

- [투자 동향] '25.2Q 이후 투자 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PE가 M&A 시장을 주도
 - 거래: '25.1Q는 PE의 M&A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Q부터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 주춤
 - '25.1Q: 거래건수 4,828건(YoY +8.2%), 거래금액 4,950억 달러(YoY +39.8%) → PE가 M&A 시장을 주도(시장 전체 거래금액의 66% 차지)
 - '25.2Q: 회복 추세 지속되었지만, 직전 분기 대비 강도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등 반영하여 포트폴리오 재검토 진행
 - 보유: 포트폴리오 내 보유기업은 30,500개('25.1Q 기준)로 절반 수준이 투자 기간 5년 이상 → 투자자들의 Exit 압력 지속
 - Exit: 중금리 환경 및 IPO 시장 부진 지속 → 컨티뉴에이션 펀드와 세컨더리 딜 등을 활용한 회수 활동 진행
 - Exit 실적('25.1Q 기준): 건수 903건(YoY +10.1%), 금액 3,020억 달러(YoY +81.9%)
- [주요 테마] AI 도입, 산업간 경계를 넘어선 융복합 투자,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 진출
 - AI를 통한 포트폴리오 운영 효율화: 대형 PE를 중심으로 '투자 의사 결정 – 포트폴리오 운영 – Exit' 전반의 과정에 AI 도입
 - Value in Motion(산업 간 융복합): 다양한 산업 투자 경험, 대규모 자금 조달 및 구조금융 설계능력을 활용하여 산업간 융복합 투자에서 중추적 역할 수행
 -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 진출: 주요 PE들은 리테일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최근에는 미국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을 새로운 타깃으로 설정

부동산
(Real
Estate)

- [투자 동향] '25년 초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산 및 중금리로 인해 투자심리 악화
- [주요 테마] 임대 등 운영 중심의 가치창출에 집중, 공급망 재편 대응, 데이터센터 투자
 - 중금리 지속으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급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운영 중심의 가치 창출 전략으로 전환: 임대 최적화, 자산 재포지셔닝 등 진행
 - 멀티패밀리(Multifamily)¹⁾: 안정적인 수익, 강한 주거 수요로 인해 투자자들의 지속적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 최근에는 아시아 및 남미로도 확장 또한 학생 주택, 시니어 리빙, 코리빙(co-living)²⁾ 등 유사 시장도 성장
 - 리테일: 옴니채널 전략 · 라스트마일 물류 · 소비자 패턴 분석을 효과적으로 접목한 리테일 자산이 고성과 시현 동시에 라이프스타일 · 편의성 · 체험 중심의 틈새 리테일 분야가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부상
 - 산업재: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리쇼어링(국내 복귀) 및 니어쇼어링(인접국 이전) 전략 가속화 → 공급망 재편에 따라 기존 산업자산 재검토 진행
 - 인프라: AI혁명에 대응한 각국의 데이터센터 투자 지속

1) 멀티패밀리: 하나의 단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임대주택. 일반적으로 100~ 300세대 규모로 구성되며, 중산층 이상 계층이 주요 임차인

2) 코리빙: 세어하우스와 유사. 대형화된 공동 공간 확보 후 각종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 청소·세탁 등의 Full-Service로 진화 중

2025년 하반기 M&A 시장 전망

1 글로벌 환경 변화 대응

- 무역분쟁 및 관세전쟁 대응: 밸류체인 재정비 및 관세 회피 위한 현지 생산망 구축, 전략적 제휴 증대
-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에 따른 핵심 자원 및 에너지 확보 중요성 부각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심도가 다소 약화되었지만, ESG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

부정적

• 중금리 환경 지속

긍정적

•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 감소
• 시장 주체들의 활로 모색

2 AI가 주도하는 기술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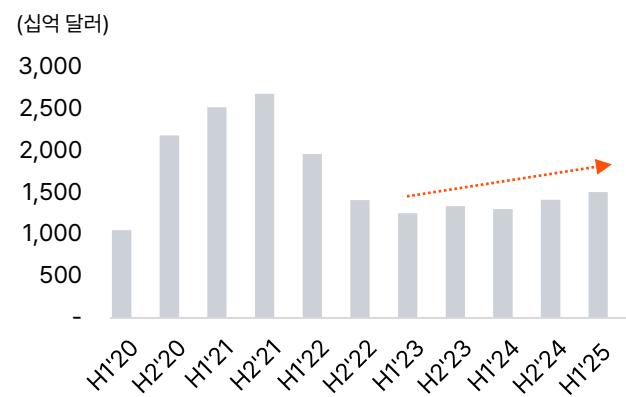
- AI 확산으로 AI 기술 뿐 아니라, 반도체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가속화
 - 자율형 AI 에이전트 경쟁 본격화와 함께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공격적 투자
 - 기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지속

3 기업 비즈니스 모델 변화 필요

- 포트폴리오 재정비: 비핵심·저성장 자산 매각 → 신기술(AI,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투자
-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해외 신시장 개척, 고령화 수혜 산업 및 공장 자동화에 관심

속도는 다소 느리더라도,
M&A 시장 회복세 지속

[M&A 거래금액 추이]
'1H23를 저점으로 회복 진행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Focus] 트럼프 2.0 경제정책 점검

트럼프 2.0 경제철학

미국 최우선 + 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 + Anti-친환경

정책 기조

Trade tariff (무역 관세 강화)

Reduction of Corporate tax (법인세 인하)

Undocumented Immigrants (불법이민 억제)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우선주의)

Petroleum (화석연료 관련 산업 확대)

실행 수단

고강도 관세 정책
: 보편관세+상호관세+품목별 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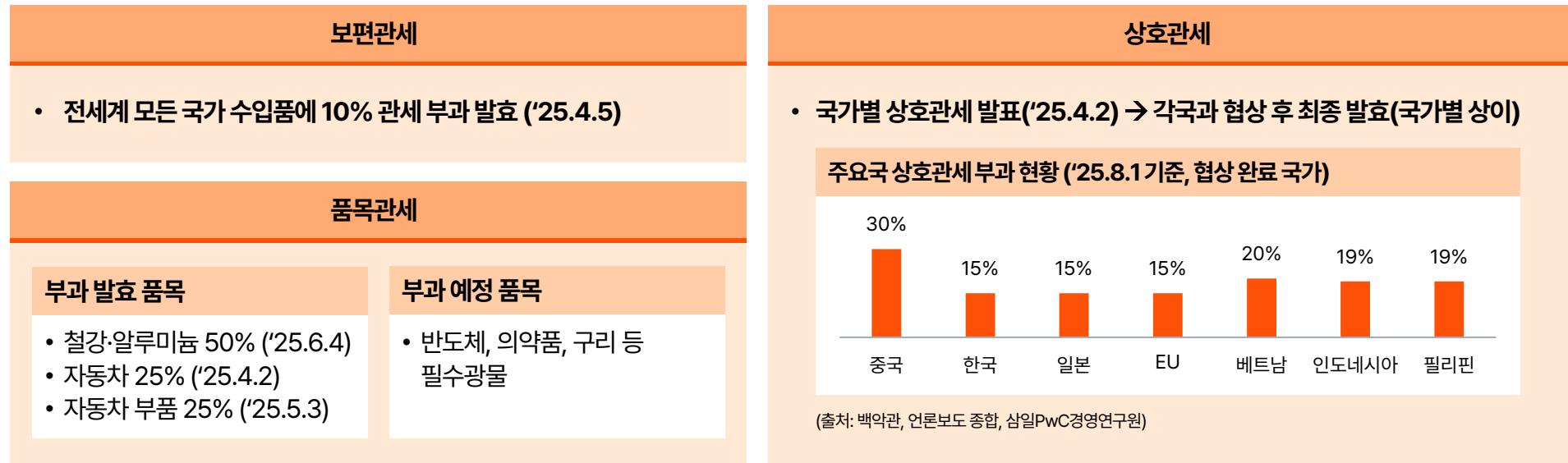
OBBBA 법안: '25.7.4 발효
(One Big Beautiful Bill Act)



트럼프 2.0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삼일PwC경영연구원의 트럼프 2기 행정부 보고서 시리즈에서 확인 가능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주요 국가 및 기업의 전략적 대응('25.04)', '미국과의 관세 합의(7/30일) 내용 및 영향'

[Focus] 트럼프 2.0 경제정책 점검: 추진 현황 ① 관세 정책

- 관세정책: 전세계 10% 보편관세 + (미국 주장) 무역 불평등 57개국에 국가별 상이한 상호관세 + 주요 품목별 관세



<p>한-미 무역합의 상세 (25.7.30 완료)</p>	<p>미국 → 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호관세: 15% (미국측이 최초 제시한 상호관세 25% 대비 하향)품목관세: 자동차 15% (전세계 대상으로 발표된 자동차 관세 25% 대비 낮은 수준) 향후 발표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품목관세에서 최혜국 대우 예정	<p>한국 → 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투자 3,500억 달러: 반도체 · 원전 · 2차전지 · 바이오 등 전략 분야 2,000억 달러 + 조선 1,500억 달러 투자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향후 3년 간): LNG 등 미국산 화석연료 구매자동차, 농산물 등 시장 개방
-------------------------------------	--	---

[Focus] 트럼프 2.0 경제정책 점검: 추진 현황 ② 산업 정책

OBBA 법안('25.7.4 발효)

세금 조정	국방비 확대	기타	산업계 영향도	긍정적	
				방위산업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 단계적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7,500달러), '25.9월로 앞당겨 폐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제도 2033년까지 단계적 폐지 (기존 유지) 및 중국산 부품 사용 규제 반도체법 상 미국 내 시설·장비 투자 세액공제 기준 25% → 35%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 관련 예산 1,500억 달러 증액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구축 (250억 달러) 군 혁신·인공지능(드론, 무인항공기, 무인 선박 포함) 160억 달러 핵 억지력 150억 달러 인도태평양 지역 120억 달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정부 부채 한도 5조 달러 증액(기존 한도: 36.1조 달러)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지출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국 방위비 증액 및 첨단 무기 확보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 상향(25% → 35%)으로, 미국 현지투자 증가
				전기차	배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 조기 종료('32년 → '25.3Q)로, 전기차 판매량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 종료에 따른 전기차 수요 감소로 배터리 판매 부진 AMPC 유지 및 중국산 부품 규제는 경쟁 기업에 반사이익
				재생에너지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 기간 축소('32년→'27년)로, 투자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지원 감소에 따른 미국 내 의약품 수요 위축 & 최혜국 대우 정책(☞38page)發 약가 인하 압박의 이중고 전망

(출처: 백악관, 삼일PwC경영연구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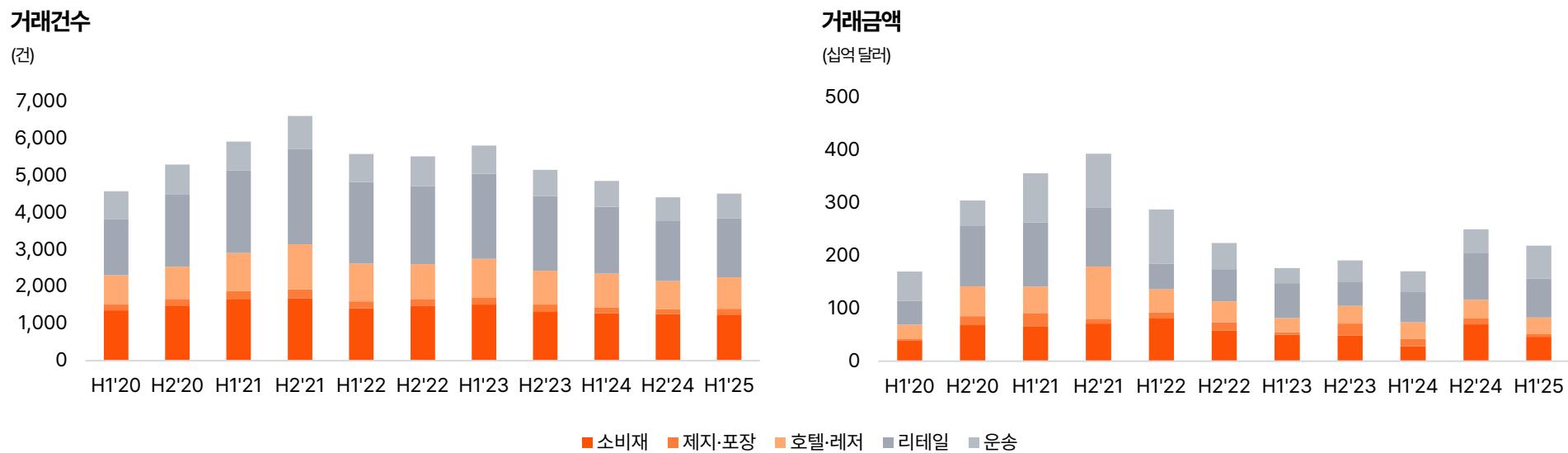
산업별 M&A Trend 및 2025년 하반기 Outlook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5 Mid-Year Update

[① 소비재] 2025년 상반기 M&A Review: Global

- '25년 상반기 글로벌 소비재 M&A 거래건수는 4,504건(YoY -7%), 거래금액은 2,192억 달러(YoY +29%)'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6%, +16%) 대비 거래건수 감소폭은 유사, 거래금액은 선방. '23년을 저점으로 거래금액 회복 추이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소비재 (+65%), 운송(+59%), 리테일(+29%) 증가 vs. 호텔·레저(-1%), 제지·포장(-63%) 감소
 - 소비재: 음식료 및 뷰티 부문의 M&A가 시장을 주도. 특히 음식료 부문은 꾸준한 수익 창출력으로 인해 기업과 PE의 관심이 지속. 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ESG 규제, 원자료비 상승 및 무역분쟁에 따른 밸류체인 변화 등이 진행
 - 운송: 홍콩 CK하치슨(CK Hutchison)이 보유한 '23개국 43개 항만 운영권' 매각 진행(228억 달러)되며, 거래금액 큰 폭 증가
 - 리테일: 덴마크 소매업체 살링 그룹(Salling Group)의 발틱 지역 소매업체 인수 등 시장 확대 목적의 대형딜이 다수 진행

소비재 부문: M&A 거래건수 및 금액_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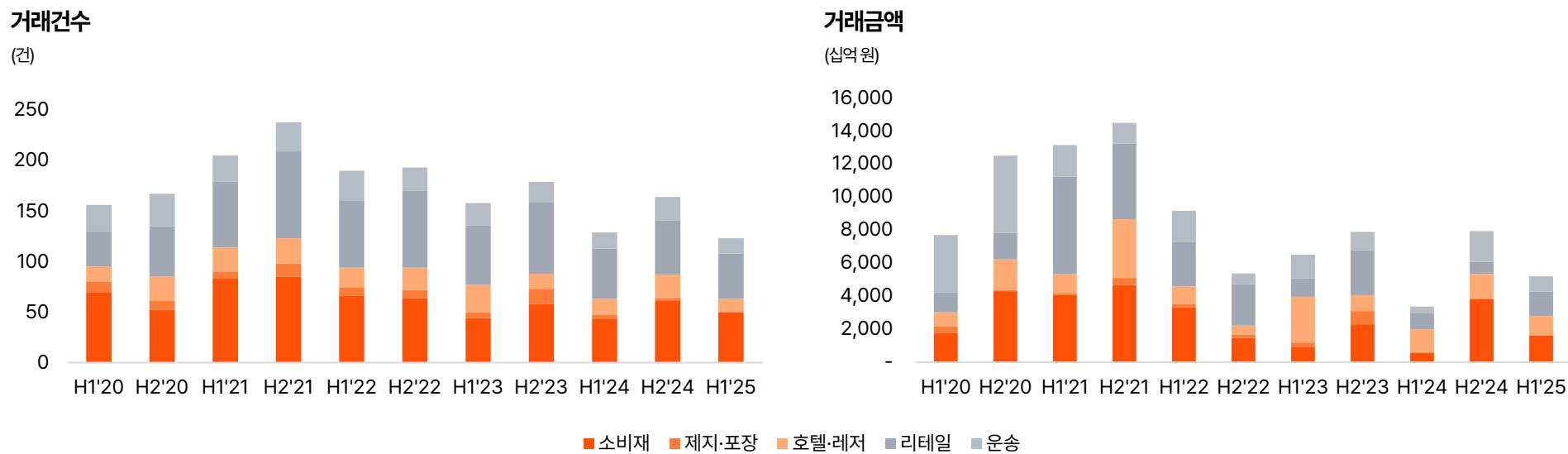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① 소비재] 2025년 상반기 M&A Review: 국내

- '25년 상반기 국내 소비재 M&A 거래건수는 123건(YoY -5%), 거래금액은 5조 1,886억 원(YoY +54%)'
 - 한국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5%, -10%) 대비 거래금액 큰 폭 증가. 다만, '24년 상반기 거래금액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의미 있는 시장 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움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소비재 (+184%), 운송(+121%), 리테일(+54%) 증가 vs. 호텔·레저(-15%), 제지·포장(-100%) 감소
 - 소비재/리테일: 한화호텔&리조트 - 아워홈(급식업체/ 8,695억 원) 인수,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 - 마녀공장(화장품/ 1,900억 원) 인수 등이 M&A 시장을 주도
 - 운송: 롯데글로벌로지스 IPO 무산되며, 에이치PE가 롯데그룹에 로지스 지분 매각(3,800억 원). 해당 딜 제외 시 시장 부진 지속
 - 호텔·레저: 중국 텐센트의 SM엔터 지분 매입(9.4%/ 2,433억 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애경 그룹의 골프장 매각(1,690억 원) 등의 딜이 진행

소비재 부문: M&A 거래건수 및 금액_국내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① 소비재] 2025년 M&A Trend 및 하반기 Outlook

- **2025년 M&A 트렌드: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핵심 부문 집중·재무 유연성 확보 → ▲관세 정책 돌파구 모색, ▲건강·개인화·지속가능성에 주목**
- **2025년 하반기 Outlook: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대응, 디지털 기술 융합, 공급망 안정화 등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구성 전망**

소비재 부문 M&A Trend

음식료

- 2025년 PwC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3이 건강상 이점을 식품 브랜드 변경 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변
- 소비자의 건강 지향적·친환경적 관심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조정
 - 미국의 음료회사 펩시코(PepsiCo), 장 건강을 내세운 프리바이오틱스 탄산음료 브랜드 포피(Poppi) 인수 발표

퍼스널 케어·뷰티

- 세분화된 소비 트렌드로 브랜드 다각화 → 특정 브랜드 인수를 통해 포트폴리오 확장
- 친환경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반영
 - 글로벌 생활용품 브랜드 유니레버(Unilever), 천연 원료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배제하는 영국 퍼스널 케어 브랜드 와일드(Wild) 인수

의류

- 관세전쟁으로 중국·베트남 중심 글로벌 의류 생산망 리스크 증대 → 주요 브랜드 매각
 - 스니커즈 브랜드 스케쳐스(Skechers), PE인 3G에 매각
 - 리바이스(Levi's), 1980년대 인기를 누렸던 의류 브랜드 도커스(Dockers) 매각 발표
→ 대표 브랜드 리바이스에 집중할 방침

리테일

- 시장지배력 강화 및 해외 진출 목적 M&A 지속
 - 덴마크 소매체인 살링 그룹(Salling Group), 발칸 3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소매업체 리미 발틱(RIMI Baltic) 인수
- 소매업 집중화를 위한 전략적 포트폴리오 조정 진행
 - 영국 편의점 WH스미스(WHSmith), 도심·쇼핑몰 중심 하이스트리트 사업부 매각 → 공항·기차역·항만 등 트래블 리테일(면세점 및 소매점) 사업에 집중 예정

호텔·여행·레저

- 관세·경제성장 둔화로 여행 수요 감소 전망 → 재무 유연성 확보 및 핵심 사업 집중 필요
 - 리조트를 운영하는 선커뮤니티즈(SUI), 요트 서비스 사업부인 세이프 하버 마리나 (Safe Harbor Marinas)를 블랙스톤 인프라(Blackstone Infrastructure)에 매각
- 티켓 판매권·미디어 판권·스포츠 부문 주목
 - NBA 구단 보스턴 셀틱스(Boston Celtics), 미 프로 스포츠 역사상 최대 금액(61억 달러)에 사모펀드 심포니 테크놀로지로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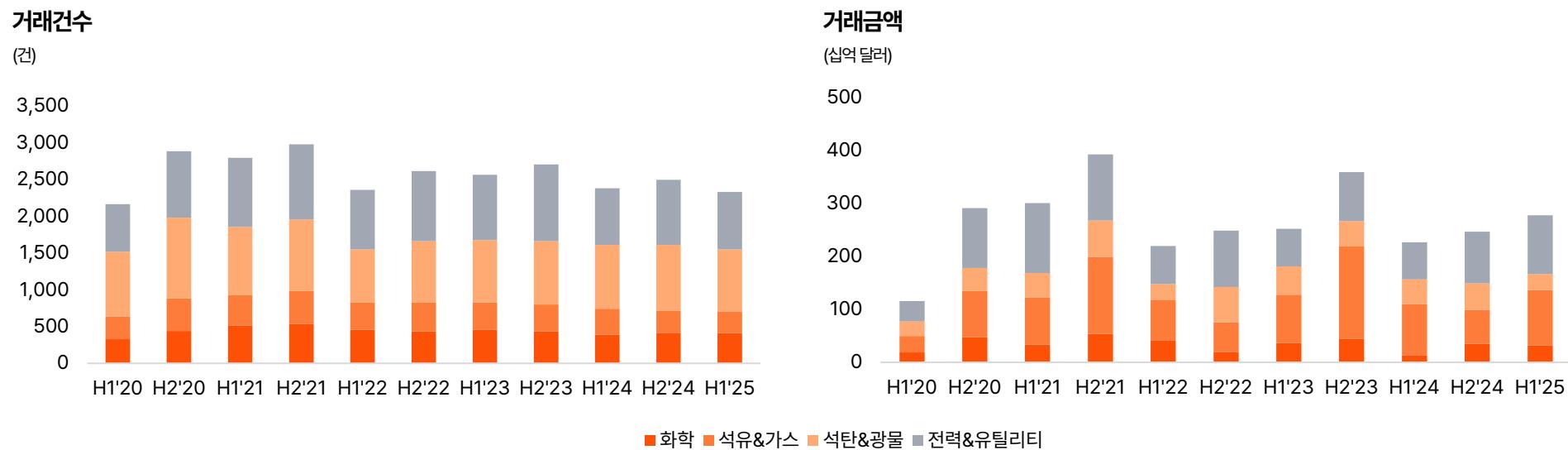
운송·물류

- 유가 하락의 단기 수혜도 존재하나, 관세 및 무역 정책 불확실성으로 거래 난항
- 기업들은 선단·장비·인력을 조정 중이며, 주요 M&A 보류

[② 에너지·유트리티·소재] 2025년 상반기 M&A Review: Global

- '25년 상반기 글로벌 에너지·유트리티·소재(EUR) 부문 M&A 거래건수는 2,327건(YoY -2%), 금액은 2,781억 달러(YoY +23%)'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6%, +16%) 대비 거래건수 및 금액 모두 선방
 - 지정학적 긴장 지속에 따라 에너지 안보 중요성 부각. 또한 AI와 전기차 확산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M&A 증가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화학(+151%), 전력&유트리티(+58%), 석유&가스(+7%) 증가 vs. 석탄&광물(-34%) 감소
 - 화학: 전년 동기 대비 거래금액 큰 폭 증가했으나, 기저효과에 기인. 화학부문의 M&A 부진은 지속
 - 전력&유트리티: 데이터센터 증가·전기차 보급 확대 → 안정적 전력 공급 목적의 M&A 증가. 또한, 스마트 그리드·에너지 저장장치(ESS)에 대한 관심도 지속
 - 석유&가스: 에너지 안보 중요성 부각 → 에너지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규모의 경제 추구 목적의 M&A가 활발
 - 석탄&광물: 광물 가치 상승에 따른 높은 매각가, 자원 민족주의,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의사결정 지연

에너지·유트리티·소재 부문: M&A 거래건수 및 금액_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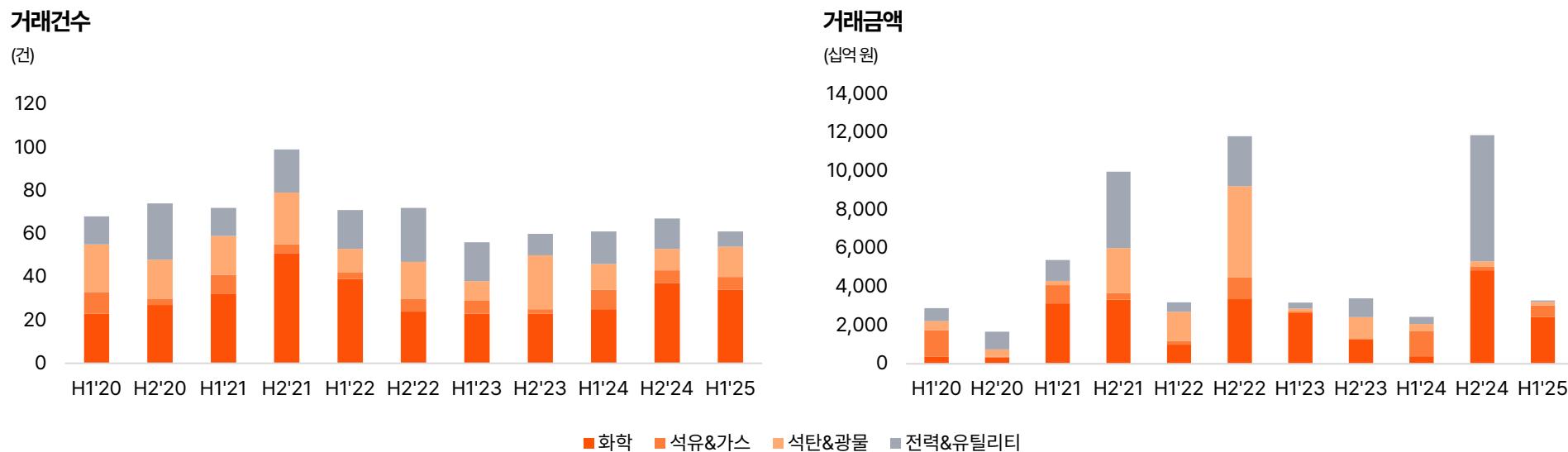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② 에너지·유트리티·소재] 2025년 상반기 M&A Review: 국내

- '25년 상반기 국내 에너지·유트리티·소재 부문 M&A 건수는 61건(YoY +0%), 금액은 3조 2,764억 원(YoY +35%)'
 - 한국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5%, -10%) 대비 건수와 금액 모두 선방. 다만 이는 전년 동기 부진한 M&A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화학(+522%) 증가 vs. 석탄&광물(-47%), 석유&가스(-53%), 전력&유트리티(-84%) 감소
 - 에너지·유트리티·소재 부문 M&A에서 화학이 74%를 차지(거래금액 기준)하며, 타 섹터들의 부진 지속
 - 화학: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배터리 부문 투자가 M&A를 주도
 - SK이노베이션은 주력인 정유·화학 산업 이익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윤활기유 생산회사 SK엔무브를 100% 자회사 편입(지분 30% 추가 매입/ 8,600억 원)
 - 2차전지 제조업체 금양, 사우디 기업인 스카이브T&I(Skaaeb T&I)로부터 4,050억 원 투자 유치
 - 2차전지 소재업체인 이녹스리튬은 PE·VC 등 16개 사로부터 2천억 원 투자 유치

에너지·유트리티·소재 부문: M&A 거래건수 및 금액_국내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② 에너지·유틸리티·소재] 2025년 M&A Trend 및 하반기 Outlook

- 2025년 M&A 트렌드: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으로 자원·에너지 확보에 관심,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등 전력부문도 주목
- 2025년 하반기 Outlook: ▲핵심 광물·자원 확보 경쟁에 따른 광업·에너지 부문 M&A 지속, ▲전기화·탄소저감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

에너지·유틸리티·소재 부문 M&A Trend

광업 및 금속

- 금·은 가격 급등으로 광산기업 M&A 관심
 - 남아공 골드필드(Gold Fields Limited), 호주 광산기업 골드로드 리소시스(Gold Road Resources) 인수 발표 → 호주 서부 금광 소유권 일원화
- 공급망 다변화로 특정 지역·자원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할 기술 중심 M&A도 주목
 - 엔지니어링 기업 웨어 그룹(Weir Group), 광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 마이크로마인(Micromine) 인수 → 채굴 프로세스 전반의 최적화 기대

전력·유틸리티

- AI 데이터센터 증가와 전기차 보급으로 전력 수요 급증
- 유틸리티 기업들은 가스·LNG 사업 매각 & 전기화·디지털 인프라 투자로 대응
- 유럽에서는 탄소저감과 인구 밀집지역 내 에너지 최적화 수요가 늘면서 지역 난방이 M&A 핫스팟으로 부상
-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에너지 믹스별 전력망 구축·에너지 저장장치(ESS)에 대한 관심도 증가

석유·가스

-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 차원의 전략적 M&A 진행
 - 미국 세일 생산업체 EOG 리소시스(EOG Resources), 석유·가스업체 엔시노(Encino Acquisition Partners) 인수 발표
 - 미국 에너지 기업 수노코(Sunoco), 캐나다 연료 유통업체 파크랜드 코퍼레이션(Parkland Corporation) 인수 발표 → 북미·중남미·유럽 내 영향력 확대
- 규모의 경제 창출 & 에너지 포트폴리오 다각화
 - 미국 원자력 발전기업 콘스텔레이션 에너지(Constellation Energy), 지열·천연가스 발전기업 칼파인(Calpine Corp) 인수 발표

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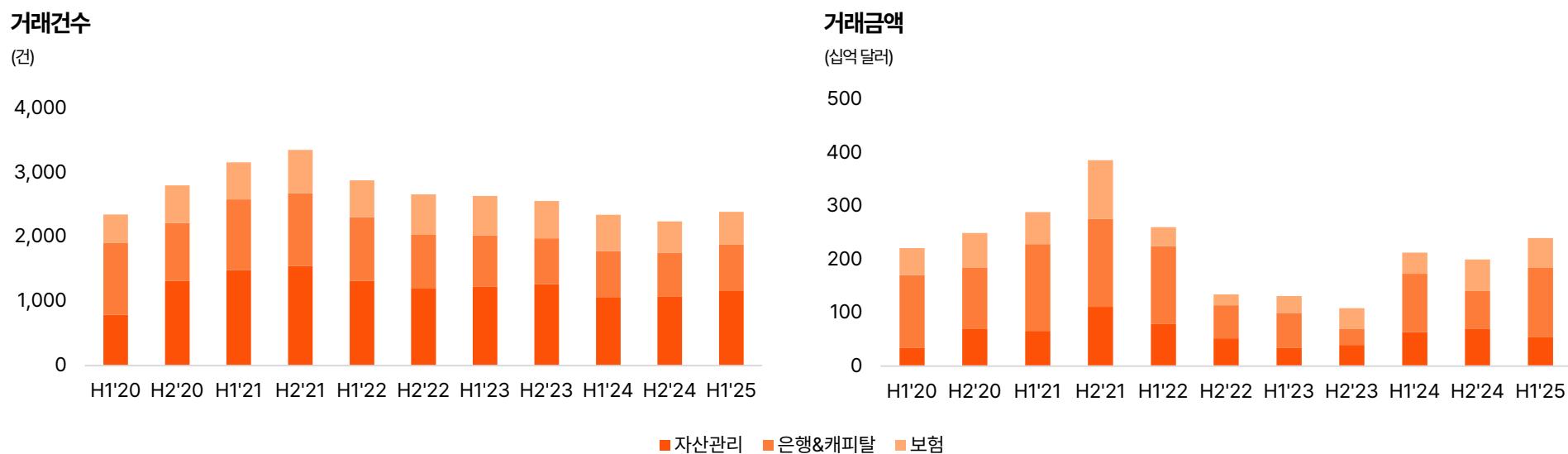
- 대형화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진출 지역을 확장하는 전략적 M&A 추진
- 특수화학 부문의 수직적 통합과 인프라 구축 부상
 - 일본 미쓰이(Mitsui), 대형 탱크터미널 운영사 인수 제안 → 미국·유럽 내 물류 네트워크 확장 및 차세대 에너지 사업 가속화 목적
- 미국은 풍부한 자원 보유, 우호적 정책 환경, 리쇼어링 정책 영향으로 M&A 주요 시장으로 자리매김

[③ 금융] 2025년 상반기 M&A Review: Global¹⁾

- '25년 상반기 글로벌 금융 부문 M&A 거래건수는 2,385건(YoY +2%), 거래금액은 2,402억 달러(YoY +13%)'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6%, +16%) 대비 거래건수는 선방, 거래금액은 소폭 부진. '22~'23년 거래금액이 크게 감소했으나, '24년부터 회복 추이
 -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금융업 전반에 걸친 통합·변혁 요구가 증대되며, 대형딜 위주로 M&A 진행 → '25년 상반기 50억 달러 이상의 메가딜이 10건 발생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보험(+42%), 은행&캐피탈(+19%) 증가 vs. 자산관리(-15%) 감소
 - 보험: 시장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대형화 추진. 스위스 보험사 헬베티아(Helvetia) - 발로이즈(Baloise) 합병으로, 스위스 2대 보험그룹 출범 전망
 - 은행&캐피탈: 금융 부문 10건의 메가딜 중 7건이 은행&캐피탈에서 발생. 결제 서비스부문 메가딜(2건)과 규모의 경제·신규 시장 확보를 위한 은행 간 M&A가 시장을 주도
 - 자산관리: 평균 1,000건 이상의 거래가 지속되며, 금융 섹터 내 거래건수의 50%를 차지. 다만, 업종 특성 상 은행&캐피탈 및 보험에 비해 소규모 딜 중심 거래

1) 금융 부문에 대한 M&A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은 제외한 수치로 작성

금융 부문: M&A 거래건수 및 금액_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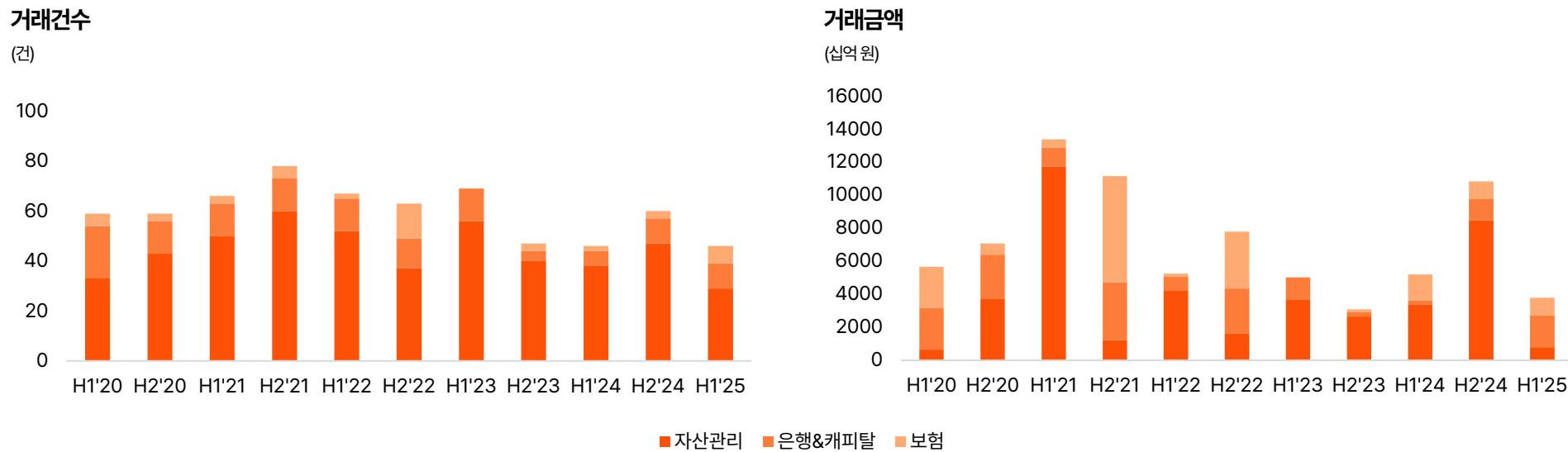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③ 금융] 2025년 상반기 M&A Review: 국내

- '25년 상반기 국내 금융 부문 M&A 거래건수는 46건(YoY 0%), 거래금액은 3조 7,930억 원(YoY -27%)'
 - 한국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5%, -10%) 대비 거래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
 - 다만, 전년 동기 메가딜이었던 2조 원 규모의 MBK-지오영홀딩스 인수¹⁾ 제외 시, '25년 상반기 거래금액은 18.7% 증가
- 1) 지오영은 의약품 유통사이나, 업종 분류 상 지주회사로 구분되어 금융부문 M&A에 포함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은행&캐피탈(+727%) 증가 vs. 보험(-32%), 자산관리(-77%) 감소
 - 금융 섹터 내 교보생명 관련 Deal이 다수 발생
 -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해 교보생명 - SBI 저축은행 인수(9천억 원)
 - 어피니티·싱가폴투자청의 교보생명 지분 매각(13.6% / 6,500억 원). 특히 어피니티 보유지분을 일본계 SBI그룹이 인수(9.05% / 4,350억 원)하며, SBI-교보생명 간 전략적 협력관계에 관심 집중

금융 부문: M&A 거래건수 및 금액_국내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③ 금융] 2025년 M&A Trend 및 하반기 Outlook

- **2025년 M&A 트렌드:** 경제적·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 ▲시장지배력 강화와 ▲신규 시장 진출 니즈가 금융권 M&A를 촉발
- **2025년 하반기 Outlook:** 금융 트렌드 변화와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M&A 지속 전망

금융 부문 M&A Trend

은행

- 대형은행간 합병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일자리 감소, 과정 폐해 등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규제로 다소 위축
- 2025년 상반기 금융권 Top 3 deal 중 2건은 결제 부문에서 발생
 - 결제서비스업체 글로벌페이먼츠(Global Payments), 월드페이(Worldpay) 인수 → 연간 결제금액 3조7천억 달러 규모 결제처리망 확보
 - 핀테크 기업 FIS, 글로벌페이먼츠 발급 솔루션 사업부 인수 → 카드 발급·결제 인프라 분야 경쟁력 강화
- 급변하는 금융업 경쟁 구도 속에서 규모의 경제·신규 시장 진출을 노린 M&A 추진
 - 주택담보대출업체 로켓 컴퍼니(Rocket Companies), 모기지 서비스 제공업체 미스터 쿠퍼 그룹(Mr. Cooper Group) 인수로 초대형 모기지 기업 출범 예고
 - 프랑스 은행그룹 BPCE, 포르투갈 대출기관 노보 방코(Novo Banco) 인수 추진
 - 콜롬비아 뱅킹 시스템(Columbia Banking System), 퍼시픽 프리미어 뱅코프(Pacific Premier Bancorp) 인수 발표 → 미국 지역은행 간 통합으로 규제 관련 비용 컨트롤 및 비은행 대출기관과의 경쟁에 대응

자산관리

- 안정적 수익원 확보와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M&A
 - 일본 노무라(Nomura), 호주 맥쿼리(Macquarie)의 미국·유럽 자산운용사업부 인수 →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자산관리 분야 수수료수익 확보
-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기대되는 사모크레딧, 인프라, ESG, 암호화폐 관련 기업 인수
- 데이터 분석·소프트웨어·회계 등 자산관리 관련 지원 서비스도 M&A 대상으로 부상
 - 핀테크 기업 클리어워터 애널리틱스(Clearwater Analytics), 투자관리 서비스형 SaaS 솔루션 기업 엔퓨전(Enfusion) 인수

보험

- 신규 경쟁자에 대응하고, 해외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대형화 추진
 - 스위스 보험사 헬베티아(Helvetia) - 발로이즈(Baloise) 합병 계획 발표 → 스위스 2대 보험그룹 출범 전망
- 세분화된 보험 중개업계에서는 업체 간 합병을 통해 플랫폼 지위를 높이는 추세
 - 보험 중개업체 브라운앤브라운(Brown & Brown), 경쟁사 액세션 리스크 매니지먼트(Accession Risk Management Group) 인수 발표

Sources: Pw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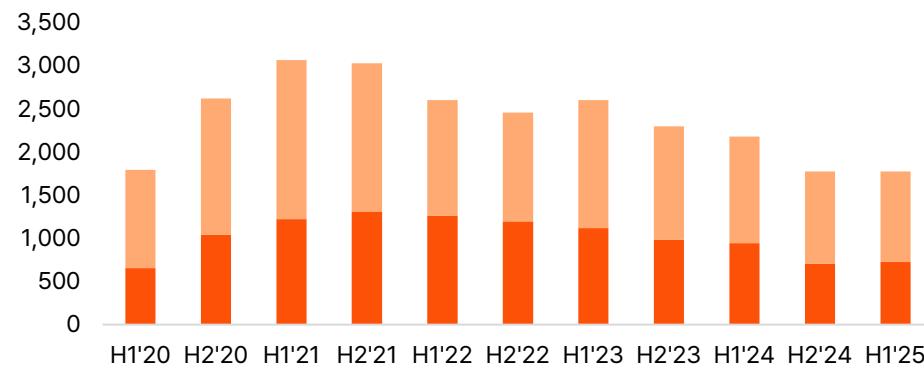
[④ 헬스케어] 2025년 상반기 M&A Review: Global

- '25년 상반기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 M&A 거래건수는 1,777건(YoY -19%), 금액은 1,164억 달러(YoY -15%)'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6%, +16%) 대비 거래건수와 금액 모두 부진
 - '22년 이후 고금리 환경下 침체된 헬스케어 부문 투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약가 책정·규제의 삼중 위협으로 난항 지속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헬스케어 서비스(+43%) 증가 vs. 제약&생명과학(-22%) 감소
 -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웨어러블 기기·맞춤형 예방 치료 등에 대한 관심. 중소형 규모의 딜이 꾸준히 발생
 - 제약&생명과학: 주요 의약품 특히 만료에 대비하여 파이프라인 확보 목적의 M&A 지속. 또한 희귀질환·유전자 치료 등의 분야에 대한 관심도 여전. 다만, 미국의 약가 정책·무역 규제·생물보안법 등의 비우호적 사업환경으로 인해 투자심리 위축되며, 시장 전반적 침체

헬스케어 부문: M&A 거래건수 및 금액_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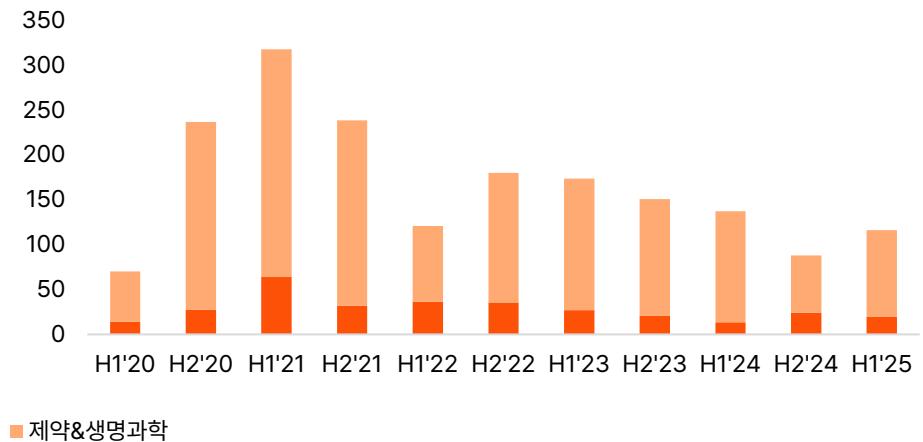
거래건수

(건)



거래금액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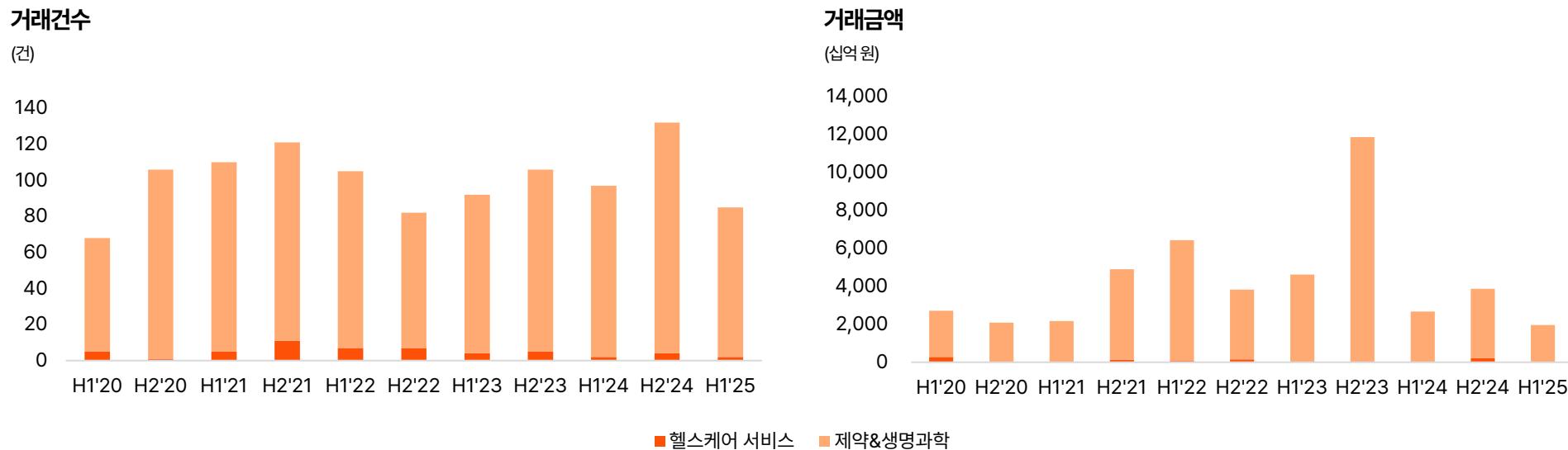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④ 헬스케어] 2025년 상반기 M&A Review: 국내

- '25년 상반기 국내 헬스케어 부문 M&A 건수는 85건(YoY -12%), 금액은 1조 9,635억 원(YoY -26%)'
 - 한국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5%, -10%) 대비 거래금액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글로벌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헬스케어 섹터가 부진한 양상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헬스케어 서비스(+135%) 증가 vs. 제약&생명과학(-27%) 감소
 - 헬스케어 서비스: 거래금액 증가율은 크지만, 거래건수 2건/ 금액 290억 원으로 의미 있는 회복은 아님
 - 제약&생명과학: 섹터 내 1천억 원 이상의 딜은 ▲국내 사모펀드 VIG파트너스 - 피부미용기기 회사 비율 인수(약 6,500억 원)와 ▲ 중국 에스테틱 기업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 - 국내 필러 전문 기업 리젠파이오텍 인수(2,770억 원)에 불과. 제약 부문 M&A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피부미용시장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

헬스케어 부문: M&A 거래건수 및 금액_국내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④ 헬스케어] 2025년 M&A Trend 및 하반기 Outlook

- **2025년 M&A 트렌드: 약가 정책 · 규제 불확실성 등의 제약 요인으로 M&A 시장 다소 위축**
- **2025년 하반기 Outlook: 헬스케어 분야는 '보건'에서 '돌봄'의 영역으로 전환 중 → 맞춤형 헬스케어 수요가 M&A 시장을 견인**

헬스케어 부문 M&A Trend

제약 및 생명공학

- 미국의 최혜국 대우 약가 정책¹⁾ 및 각종 무역 규제 위기감으로 메가딜보다 중소형 딜 위주 진행 (섹터 내 메가딜은 2건에 불과)
1)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약가 정책으로 인당 GDP가 미국의 60% 이상인 OECD 국가 중 약가가 가장 낮은 나라 정책을 참조하여, 미국 내 처방의약품 약가를 동일한 가격 수준으로 인하
- 특히 만료에 대비하여,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M&A가 추진
 -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인트라셀룰러 테라피스(Intra-Cellular Therapies) 인수 발표 → 조현병 · 우울증 치료제인 카플리타(CAPLYTA) 등 주요 파이프라인 확보
- 종양 · 희귀질환 · 유전자 치료는 여전히 시장의 주요 관심사
 - 사노피(Sanofi), 블루프린트(Blueprint Medicines) 인수 발표 → 비만세포증 치료제 등 희귀 면역질환 분야 포트폴리오 강화
- 중국은 주요 시장으로 부상 중이나, 미국의 '생물보안법'²⁾ 등으로 인해 거래 부담 가중
2)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여, 미국 바이오 산업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 특히 중국의 유전체 기업이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과의 협력을 강력 제재

헬스케어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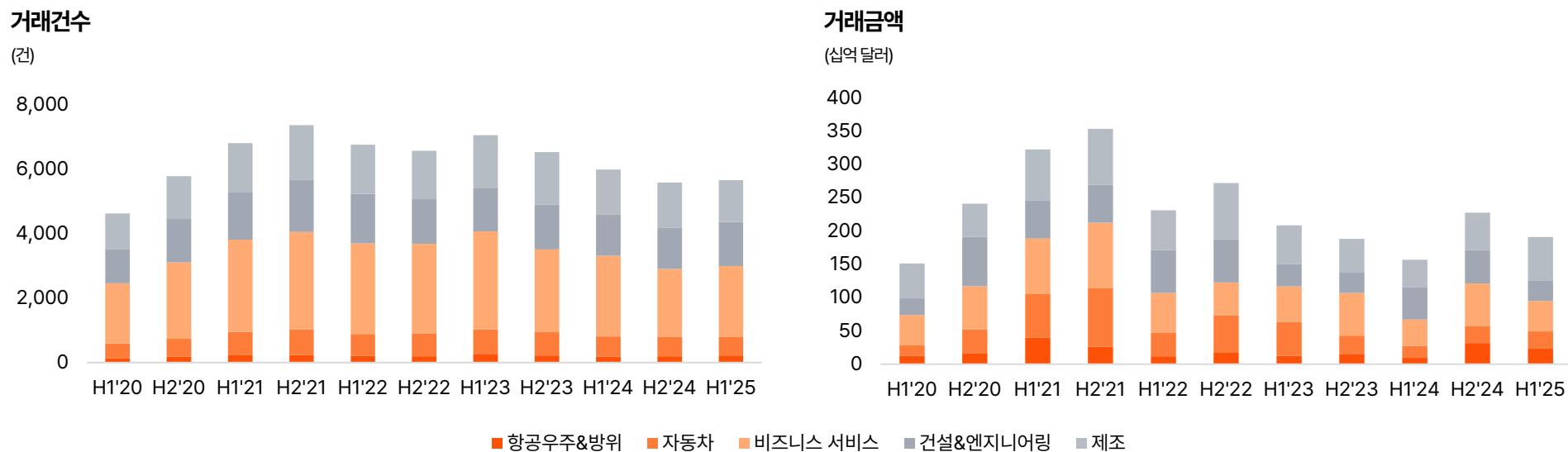
- 디지털 · 맞춤형 예방 치료를 추진하는 기술 기업들에 관심 증가
- 웨어러블 기기 ·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등을 활용해 효율적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점차 확대
- 인건비 부담 · 부채 압박에 노출된 기업들은 비용 절감 및 대차대조표를 개선할 수 있는 M&A 대상 물색 중
- 다만, 미국에서는 최혜국 대우 · 메디케어 관련 규제 · 관세 등의 영향으로 일부 M&A가 지연된 상태

Sources: PwC analysis

[⑤ 산업재·자동차] 2025년 상반기 M&A Review: Global

- '25년 상반기 글로벌 산업재·자동차 부문 M&A 거래건수는 5,657건(YoY -6%), 거래금액은 1,910억 달러(YoY +22%)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6%, +16%) 대비 거래금액 양호.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에 따른 방위산업의 부상이 M&A 시장을 견인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항공우주&방위(+141%), 제조(+63%), 자동차(+46%), Biz서비스(+15%) 증가 vs. 건설&엔지니어링(-38%) 감소
 - 항공우주&방위: 주요 기업들은 AI·드론·사이버보안 등 첨단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 보잉(Boeing)의 디지털 항공 사업부문 일부 매각(105억 달러)이 섹터 내 가장 큰 규모의 딜이었으며, 이 외에 소규모 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거래건수 및 금액 동반 증가
- 제조, 자동차: 관세전쟁·과잉생산 구조·AI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현지 생산기지 구축·디지털 전환 등 전방위적 구조개편 진행
- 건설&엔지니어링: 중금리 환경 지속되며, 주택 부문 투자 위축 vs. 에너지 인프라·시니어 산업 등 틈새 분야에 대한 관심 증가

산업재·자동차 부문: M&A 거래건수 및 금액_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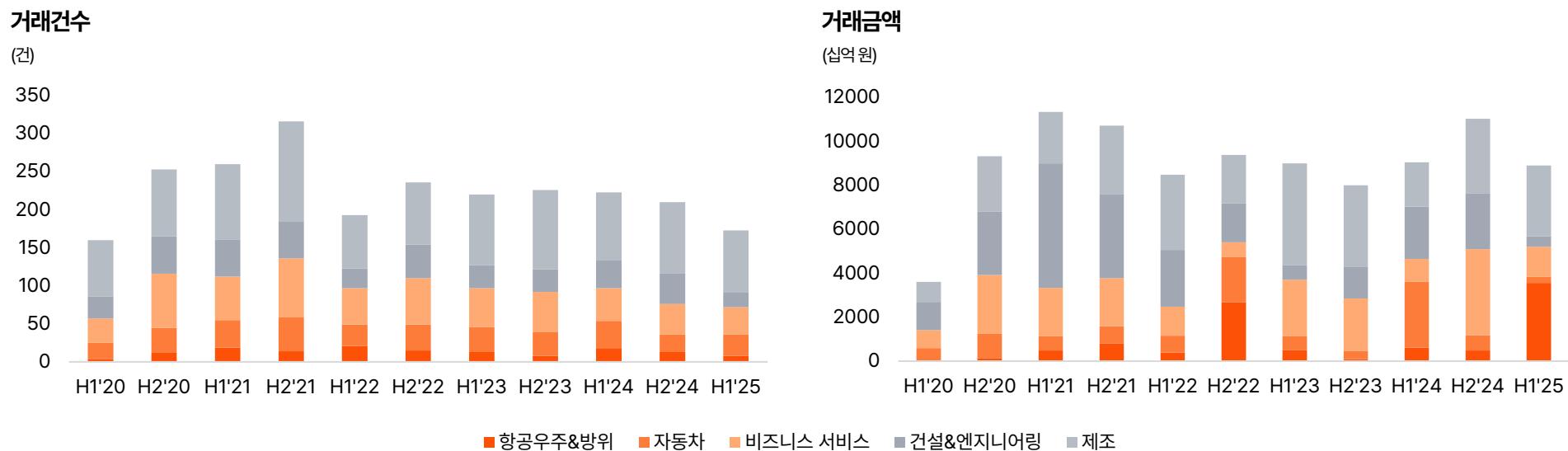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⑤ 산업재·자동차] 2025년 상반기 M&A Review: 국내

- '25년 상반기 국내 산업재·자동차 부문 M&A 거래건수는 173건(YoY -22%), 거래금액은 8조 9,088억 원(YoY -1%)
- 한국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5%, -10%) 대비 거래건수는 부진하나, 금액은 양호
- 세부 섹터별로는 항공우주&방산이 전체 시장을 견인.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항공우주&방위(+480%), 제조(+60%), Biz서비스(+30%) 증가 vs. 건설&엔지니어링(-80%), 자동차(-91%) 감소
 - 항공우주&방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한화오션 지분 추가확보(7.3%/ 1.3조 원), HD한국조선해양의 교환사채(EB) 발행(6천억 원) 등의 대형딜 발생
 - 제조: LG화학의 수처리필터 사업부 매각(1.4조 원), 유리기판 및 이차전지 사업 확대를 위한 SKC의 EB발행(2,600억 원), 전기차 충전업체 SK시그넷 유상증자(1,500억 원) 등 신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
 - 자동차: 전년 동기 한국타이어-한온시스템 인수(1.2조 원), 현대차그룹-모셔널AD 추가 투자(1.2조 원) 등의 대형딜이 다수 발생.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25년 상반기 거래금액 크게 감소

산업재·자동차 부문: M&A 거래건수 및 금액_국내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⑤ 산업재·자동차] 2025년 M&A Trend 및 하반기 Outlook

- **2025년 M&A 트렌드: 지정학적 리스크·관세 위협으로 M&A 관련 악재(거래 중단·재검토)와 호재(국방력 강화·해외 공급망 구축)가 상존**
- **2025년 하반기 Outlook: 장기 성장 동력으로써 제조 분야 핵심 역량과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산업재·자동차 부문 M&A Trend

항공우주·방위

-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국방 예산과 방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M&A 동력 지속
- AI 기반 방위시스템·드론·우주·사이버보안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M&A가 활발히 진행
- 기업의 포트폴리오 조정과 PE의 방위기술 관심 증가가 맞물려 대규모 거래도 성사
- 보잉(Boeing), 토마 브라보(Thoma Bravo) PE에 디지털 항공 사업부문 일부 매각
- 유럽·중국에서는 방위산업 신규 진입을 위해 소규모 방산 기업들에도 관심
- 다만, 국가안보 관련 규제는 일부 거래에 제약 요인 → 합작투자와 소수 지분 투자로 대체

자동차

- 과잉생산 구조와 장기적 비용 상승 압력, 신기술 확산에 대응하여 구조개편 진행 중 → 비핵심자산 매각 & 전기화·디지털 전환 집중
- 중국·일본 기업들은 불확실한 무역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인수·합작 투자로 동남아·유럽 현지 생산기지를 구축
- 배터리·소프트웨어·자율주행 부문에서는 리스크 관리와 대규모 혁신을 병행하기 위한 합작투자가 보편화되는 추세
- 일부 기업은 배터리 원자재 등 핵심 광물을 확보하며 광업 등 인접분야로 사업 확장

비즈니스 서비스(전문 서비스)

- 경기 민감도가 낮고 안정적 현금흐름을 갖춘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 M&A 수요 지속
- PE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회계·법률·엔지니어링 컨설팅 분야 소규모 기업 통합
- 시장 통합 및 수익률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출구전략이 미흡한 점은 한계

건설·엔지니어링

- 일본의 고령화·미국의 이민정책으로 인한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일부 제약요인으로 작용 중이나, 의료시설·에너지 인프라 부문 수요는 여전히 견고
- 비용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조립식·모듈러 건설방식 확산
- 제임스 하디(James Hardie), 주거 외장재 분야에 강점을 가진 아제크(AZEK) 인수 → 선도적 건축 자재 플랫폼 도약 목표
- 전력망·원자력·AI 기반 건설 솔루션 등에 관심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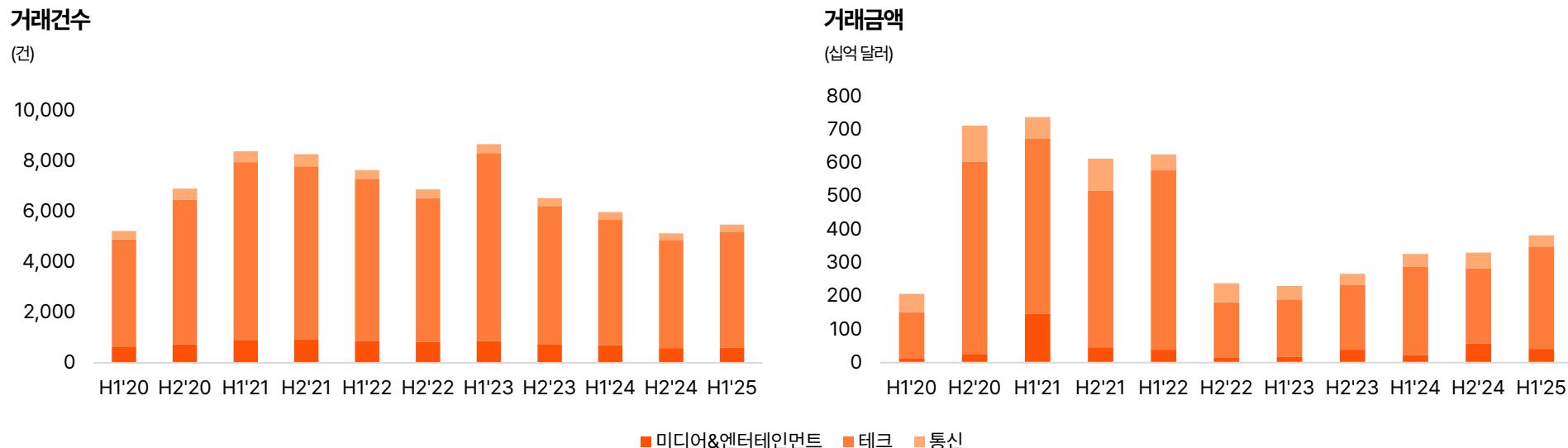
제조

- 산업 제조 분야 M&A는 관세 영향으로 제약이 큰 상황
- 미국·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남아 지역 투자 진행
- 생산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AI·첨단제조기술 투자 가속화 → 자동화·로봇공학·디지털 전환 부문 M&A 활발
- 유럽·중국에서는 인프라 현대화와 에너지 안보·국방력 강화 수요가 M&A를 촉진

[⑥ IT·통신&미디어] 2025년 상반기 M&A Review: Global

- '25년 상반기 글로벌 IT·통신&미디어 부문 M&A 거래건수는 5,491건(YoY -8%), 거래금액은 3,816억 달러(YoY +17%)'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6%, +16%) 대비 거래건수 및 금액 모두 유사한 움직임. 거래금액이 '22.2H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시장 회복을 주도
 - AI 관련 투자 슈퍼사이클로 향후 테크 분야의 활발한 M&A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미디어&엔터테인먼트(+86%), Tech(+16%) 증가 vs. 통신(-15%) 감소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OTT 등 채널 변화에 대응한 포트폴리오 재편 지속. 또한, 관세 영향이 미미(매출이 대부분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고, 수익이 안정적인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가
 - Tech: AI 관련 투자 활발. AI 기술 뿐 아니라, 데이터·반도체·인프라 등 전방위에 걸친 공격적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 주도 투자가 상당한 비중 차지. AI 집중을 위한 주요 기업들의 비핵심사업 매각이 동시 진행되고 있으며, 관세 리스크에 덜 노출되는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해서도 관심

IT·통신&미디어 산업: M&A 거래건수 및 금액_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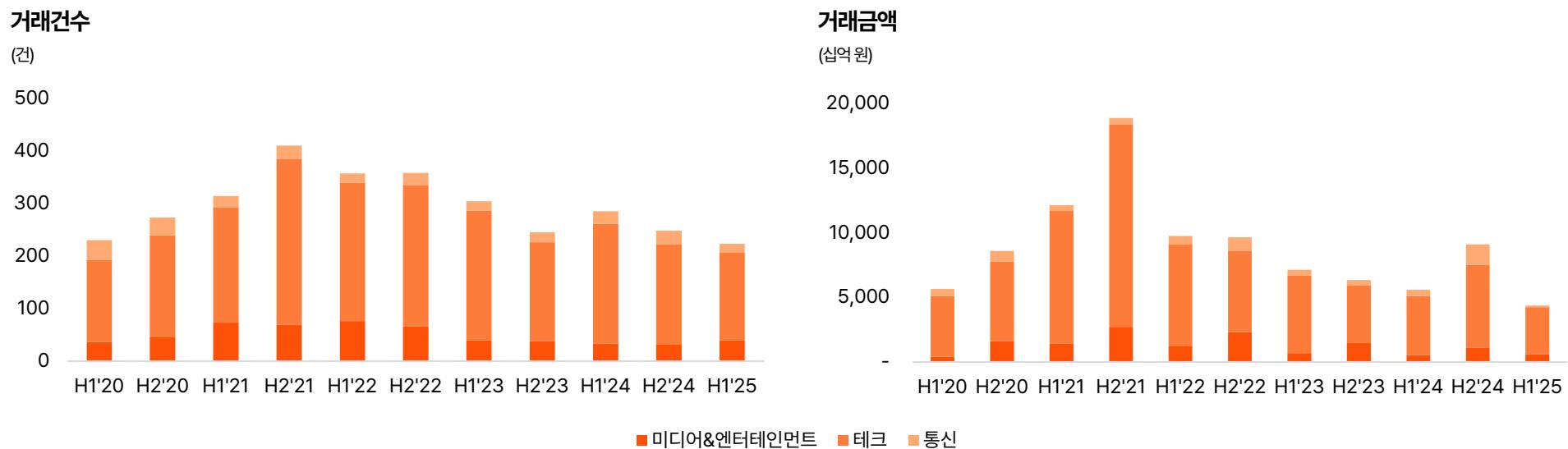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⑥ IT·통신&미디어] 2025년 상반기 M&A Review: 국내

- '25년 상반기 국내 IT·통신&미디어 M&A 거래건수는 223건(YoY -22%), 거래금액은 4조 3,581억 원(YoY -22%)'
 - 한국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5%, -10%) 대비 건수 및 금액 모두 감소폭이 큼
 - 글로벌 IT·통신&미디어 시장(각각 YoY -8%, +17%) 대비로도 크게 부진. AI를 중심으로 글로벌 Tech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투자가 미진한 상황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미디어&엔터테인먼트(+12%) 증가 vs. Tech(-20%), 통신(-73%) 감소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관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K-콘텐츠를 중심으로 성장 지속
 - Tech: AI 열풍 속에서 한국기업은 M&A보다 직접투자를 통한 내부 역량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 이에 따라 Deal 부진 지속
 - 통신: 거래건수와 금액 모두 큰 폭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M&A가 침체된 상황.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AI와 접목된 신규 성장동력 찾기에 대한 관심은 지속

IT·통신&미디어 산업: M&A 거래건수 및 금액_국내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⑥ IT·통신&미디어] 2025년 M&A Trend 및 하반기 Outlook

- **2025년 M&A 트렌드:** ▲ AI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M&A 활발, ▲ 미디어·통신업계는 핵심 영역 집중을 위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진행
- **2025년 하반기 Outlook:** ▲ AI 인프라 구축 경쟁 심화, ▲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M&A 전망

IT·통신&미디어 부문 M&A Trend

Tech

- 사용자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율형 AI 에이전트 분야 경쟁이 본격화되며 M&A의 새로운 개척지로 부상
- AI 에이전트 기술 뿐 아니라 데이터·AI 반도체 등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인프라·인재 확보 움직임
 - IBM, 데이터스택스(DataStax) 인수로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 엣지 AI 칩 관련 스타트업 키나라(Kinara) 인수 발표 → AI 기반 모빌리티 및 엣지 AI 전략 추진 계획
 - 소프트뱅크(SoftBank), 반도체 설계업체 암페어(Ampere) 인수 발표
-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AI 집중을 위해 비핵심사업 축소·매각
 - 마벨(Marvell), 독일 인피니언(Infineon)에 자동차 이더넷 사업 매각
 - 인텔(Intel), 사모펀드 실버레이크(Silver Lake)에 FPGA 자회사 알테라(Altera) 지분 51% 매각
- 미국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미국 내 AI 개발 가속화 전망

미디어&엔터테인먼트

- D2C(Direct-to-Consumer) 시장과 OTT 성장으로 미디어 업계가 격변하면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분리 진행
 - 워너 브러더스 디스커버리(WBD), 스트리밍·스튜디오 부문과 글로벌 네트워크 부문(TV 방송 등) 분사 진행 중
- 빅테크들은 막대한 자본력에 콘텐츠 유통 역량을 결합하며 콘텐츠 시장 재편
 - 아마존(Amazon), 007 시리즈 창작통제권 확보
- 시각효과 발전과 배우의 디지털 구현 등 새로운 창작 기술 도입도 M&A 활성화 요인
- 한편, 대부분 수익이 국내에서 발생하여 관세 영향이 미미하고 수익률이 양호한 스포츠 프랜차이즈가 부상하며, 스포츠 분야에 투자하는 중형 펀드 다수 설립

통신

- 스트리밍 서비스·5G 인터넷 서비스 확산으로 전통 케이블업체 입지 축소
 - 미국 2위 케이블·인터넷 사업체 차터 커뮤니케이션스(Charter Communications), 3위 사업자 콕스 커뮤니케이션스(Cox Communications) 인수 발표 → 서비스 통합 및 확장 전략으로 대응
 - 통신 인프라 기업 크라운캐슬(Crown Castle), 소형 셀 및 광섬유 솔루션 사업 매각 → 운영 효율화·집중화 전략으로 대응
- 시장 성숙도·규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비핵심시장 철수

Business Contacts

Deals Leader

민준선 Partner
joon-seon.min@pwc.com

M&A센터

정경수 Partner
kyungsoo.jung@pwc.com

GSP그룹

곽윤구 Partner
yun-goo.kwak@pwc.com

PE그룹

이정훈 Partner
junghoon.lee@pwc.com

FS&RE그룹

한정섭 Partner
jeong-seob.han@pwc.com

MM그룹

이도신 Partner
do-shin.lee@pwc.com

헬스케어

정지원 Partner/바이오·제약
ji-won.jung@pwc.com

이승훈 Partner/바이오·제약
seung-hun.lee@pwc.com

장병국 Partner/메디칼 디바이스
byeong-guk.chang@pwc.com

IT·통신&미디어

최창대 Partner/통신
chang-dae.choi@pwc.com

이도신 Partner/미디어
do-shin.lee@pwc.com

유상문 Partner/IT
sang-moon.yoo@pwc.com

박기남 Partner/반도체
kee-nam.park@pwc.com

금융

김기은 Partner
gee-eun.kim@pwc.com

홍영관 Partner
young-kwan.hong@pwc.com

에너지·유ти리티·소재

서용태 Partner/에너지
yong-tae.seo@pwc.com

한정탁 Partner/유ти리티
jungtak.han@pwc.com

조한준 Partner/철강
han-jun.cho@pwc.com

박치홍 Partner/운송·항공
chihong.park@pwc.com

이수빈 Partner/화학
soo-bin.rhee@pwc.com

산업재·자동차

허제현 Partner/자동차
je-heon.heo@pwc.com

홍석형 Partner/조선
seok-hyoung.hong@pwc.com

김진 Partner/건설
jin_4.kim@pwc.com

손영백 Partner/환경
young-baek.sohn@pwc.com

홍준혁 Partner/기계
joonhyuk.hong@pwc.com

소비재

최창윤 Partner/유통·음식료
chang-yoon.choi@pwc.com

홍성표 Partner/화장품
sungpyo.hong@pwc.com

심양규 Partner/화장품
yang-kyu.shim@pwc.com

이지혁 Partner/호텔·레저
jeehyouk.lee@pwc.com

Deals Platform

성낙필 Partner
nack-pil.sung@pwc.com

김용현 Partner/DDV&DS
yonghyun.k.kim@pwc.com

김경호 Partner/Tax
gyungho1.kim@pwc.com

장유신 Partner/Consulting
yoo-shin.chang@pwc.com

김성호 Partner/Global
sung-ho.kim@pwc.com

Author Contacts

삼일PwC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
eunyoung.lee@pwc.com

오선주 수석연구위원
sunjoo.oh@pwc.com

안정효 선임연구원
jeonghyo.ahn@pwc.com

강수정 연구원
sujeong.j.kang@pwc.com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8W-RP-089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samil.com